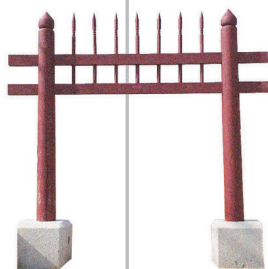


선잠단지



지킴이 30년

이만규 이야기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 10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sb 성북

**선잠단지 지킴이 30년
이만규 이야기**

선잠단지 지킴이 30년 이만규 이야기

임진희·정봉운·오진아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10

선잠단지 지킴이 30년 이만규 이야기

구술자 이만규

지은이 임진희·정봉운·오진아

엮은이 오진아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김영일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이만규 · 성북문화원, 2024

ISBN 979-11-985990-5-6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책으로
성북구 주민기록단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주민기록단은 성북구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성북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024 주민기록단

기획 강성봉

교육 오제연

운영 장지희·오진아·박유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는 힘

성북문화원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통해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바로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입니다. 2020년 시작된 이 시리즈는 5년이라는 세월 속에 벌써 10번째 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함께한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은 지역공동체 아카이브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주민의 삶을 기록하며, 지역 주체로서의 주민을 되새기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년과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기록단 교육 실습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책을 제작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그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주민기록단 기록가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하였습니다.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은 주민기록단은 구술자로부터 더욱 세밀하고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 주었습니다. 이는 다년간 주민기록단과 함께해주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을 비롯한 강사진들의 헌신적인 교육과 주민기록단의 교육과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성북학아카이브팀의 정성이 쌓여 이룬 결과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

력과 공동체 의식 속에서 힘을 얻으며 성장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성북동에 거주하며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잠단지를 보존하고, 오랜 기간 실전되었던 선잠제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 잡는 데 공헌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술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작이 외부의 강요나 비장한 사명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서 선조에 대한 예를 다하는 마음, 동네 대소사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사람들의 삶을 듣는 일은 단순히 개인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동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지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다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찾고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성북문화원은 계속해서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기억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성북문화원 원장 김 영 일

지역공동체가 키운 성북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한결 같지는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사회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킨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 공동체가 악화 혹은 억압되어 사회도 침체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 특히 아래로부터 조직된 지역공동체는 사회 전반의 활력과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북구는 서울시 여러 구 중에서 기초 단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성북문화원입니다. 단연코 성북문화원은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가장 활성화된 지역공동체 허브입니다. 그리고 성북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주민기록단은 성북 내 여러 지역공동체의 역사 및 현황을 발굴 조사 정리하여 지역민 전체와 소통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기록단이 지역공동체를 담아내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구술인터뷰’입니다. 즉 지역공동체의 중요 구성원들을 찾아 그분의 생애 전반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그분이 성북구에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했

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은 매년 구술인터뷰의 방법과 실습을 중심으로 매년 주민기록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술인터뷰의 성과를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라는 책으로 간행하고 있으며, 드디어 이번에 열 번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 열 번째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의 주인공은 이만규 님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이만규 님은 10대 후반 서울로 상경하여 액자 틀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한 이래 지금까지 그 계통으로만 외길을 달려왔습니다. 20대 후반 결혼과 동시에 미아리고개에 신혼집을 차린 뒤 1979년 성북동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46년 동안 계속 성북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만규 님은 성북동 선잠단지 인근에서 액자, 유리, 표구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공동체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잠단지 지킴이, 선잠제보 존위원회 활동입니다. 오늘날의 성북동 선잠단지와 선잠제는 이만규 님과 같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복원하고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선잠단지와 선잠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통해 이만규 님의 이야기를 꼭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향우회나 친목회 등 이만규 님이 참여한 다른 지역공동체의 이야기나, 성북동 지역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이 책이 간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장시간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만규 님께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구술면담에 임해주신 성북문

회원 및 주민기록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어수선하게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되고 다시 힘차게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4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머 리 말

성북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시대부터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이 문화유산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이 구술사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의 열 번째 주인공인 성북동의 이 만규님은 선잠단지 지킴이이자 선잠제보존위원회로서 선잠단지의 가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46년이라는 긴 세월 성북동에 거주하며 겪은 성북동의 변화와 오랜 세월에도 변치 않는 성북동의 매력에 애정을 품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구술 내용에 따라 ‘1부 길쌈 돕고, 고사리 따던 어린 시절’, ‘2부 지금까지 이 계통으로만 외길로 왔어요.’, ‘3부 선잠단지와 30여 년’, ‘4부 고향 같은 성북동에서’ 총 4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 추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길쌈 일을 돕고, 산으로 바다로 고사리 따고 물고기 잡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마을의 생업과 생활상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안타까운 가족사와 풍족하진 않았던 환경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구술자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의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성북동 정착 과정과 구술자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중

심으로 엮었습니다. 10대 후반 어린 소년이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갈고닦아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 힘든 전문가의 작업 과정과 세월에 따라 직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3부에서는 선잠단지와 함께한 세월에 담긴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했다는 우연에서 시작된 선잠단지와의 인연은 선잠단지 지킴이와 선잠제보존위원회로 30년이 넘게 이어지며 구술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평범했던 것처럼 특별한 사명감이 아니라 지역의 일원으로서 담담하게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부에서는 성북동에서의 삶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960년대 상경해 결혼 후 정주한 성북동은 어느새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성북동에서 46년간 거주하며 느낀 변화와 변치 않는 것에 대한 감상, 지역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분들께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이만규님의 넉넉한 인품과 유쾌함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 오진아

차 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1
약력	17

1부 길쌈 돕고, 고사리 따던 어린 시절

19

황소배라는 산 밑에서 살았어요	21
어머니가 모시 팔고 오시면 그날이 사탕 사 오는 날이었죠	27
봄이면 누님들이랑 어머니랑 깊은 산으로 고사리 꺾으러 가고	32

2부 지금까지 이 계통으로만 외길로 왔어요

39

미아리고개 그 산꼭대기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졌지	41
집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예뻐어요	46
제일사라는 이름이 여지껏 그렇게 왔어요	49
그래도 돈이 들어오면은 피곤하지 않아	57

3부 선잠단지와의 30여 년

61

옛날에는 뽕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63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던 일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69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시작된 선잠제보존위원회	74
선잠제 처음은 동네잔치였지	78
생각이 안 났다가도, 그 자리에 가서 서면 몸이 따라줘	84

4부 고향 같은 성북동에서	91
그때는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시골 같은 동네였죠	93
객지 나와서 친구를 만나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100
아무래도 46년을 살다보니까 동네에 애착이 가죠	106
앞으로 바라는 건 나이 먹은 우리 두 노인네 더 아프지 않는 거죠	110
 에필로그	 116
이미지 출처	118



약력

1950년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10남매 중 셋째로 출생
1959년	수곡국민학교 입학 이후 비인국민학교로 전학
1964년	비인국민학교 졸업
1967-68년경	상경, 뚝섬 인근 공장에서 근무
1978년	결혼 미아리고개에 신혼집을 마련
1979년	성북동으로 이사 선잠단지 인근에서 제일사 운영 시작
1987년	성북제2동 제3통6반 명예반장 표창장 수상
1990년대 초반	선잠단지 지킴이로 활동 시작
1993년	선잠제보존위원회 조직 제1회 선잠제향 봉행
2009년	서울시 자원봉사 은장 수상
2010년	현재 자리(성북로 26)로 제일사 이전
2022년	새마을기념장 수상

면담정보

1차면담

면담자: 오진아

녹취자: 오진아, 박유진

면담장소: 성북근현대문학관 교육실(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24)

면담일자: 2024년 7월 23일

2차면담

면담자: 오진아

녹취자: 오진아, 박유진

면담장소: 성북역사문화센터 2층(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31)

면담일자: 2024년 8월 20일

3차면담

면담자: 임진희, 정봉운

녹취자: 임진희, 정봉운

면담장소: 성북근현대문학관 교육실(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24)

면담일자: 2024년 9월 19일

1부

길쌈 돕고, 고사리 따던 어린 시절



황소배라는 산 밑에서 살았어요

● 고향과 태어나신 날을 말씀해주세요.

본적은 충청남도 서천군이고요.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쪽 자라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내가 양력으로 50년 2월 10일인데, 음력으로는 49년생이에요. 12월 24일. 구정 한 일주일 전이에요.

● 부모님 성함과 가족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이 사자 익자, 어머니는 신 매자 섭자. 아버님은 오래전에 한 사십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흔셋에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어머니가 많이 낳으셨어요. 열을 낳았어요. 그래서 둘을 잃고 팔 남매를 키웠는데 지금 우리 팔 남매 다 있어요.

● 올해 추석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향은 다녀오셨나요?

저희가 차례나 이런 걸 다 제사까지 다 지냈었는데 집사람이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올해 추석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추석 전 주말에 가서 벌초는 하고 왔죠. 우리 집은 서천군 종천면 신검리인데 우리 조부님이랑 모신 자리는 랑평리라고 있어요. 몇 대손까지 하는 선산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 일찍 가신 제수씨, 삼대 정도 모신 가족묘예요. 고향에 가서 벌초하고 산소에다 과일, 술 한 잔 부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동기간 만나서 내가 큰 누님이랑 해서 내가 저녁밥 사고 그러고서 올라왔죠.

● 사시던 동네는 이씨들이 같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나요?

아뇨, 이사 왔어요. 원래 보령군 주산면 유곡리¹⁾쪽에 저희 선조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시제(時祭)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휘딱 지나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1) 현재 행정구역명은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이다.



서천군 행정지도(출처: 서천군청 홈페이지)

● 예전에 살던 동네에 별칭이 있었나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이랑 어머니 잠들어 계신 데는 신검리하고 바로 붙어 있는 랑평리라는 곳인데 ‘숫동메’라고 그래요. 숫동메²⁾. 저희는 또 신검리에서 살았는데 처음에 이사 와서는 ‘황소배’라는 산 밑에서 살았어요.³⁾ 왜냐하면 산이 황소같이 생겼는데 황소배 쪽에 그쪽에 집을 짓고 살아서 황소배에 살았고, 그다음에는 또 건너편으로 왔는데 작은 적굴이라고 했어요. 시골 동네들이 그 골목 골목마다 큰 적굴, 작은 적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바로 우리 동네 옆에 가면은 성산리라고 있는데 미륵굴이라고 했어요.⁴⁾ 미륵이 있어서 원래는 미륵굴인데 미륵굴이라고 안 하고 미력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큰 미력, 작은 미력, 굴방 이렇게도 부르고 그랬지요.

2) 랑평리의 숫동메라 부르는 이 마을은 이 부근에 복종형(伏鍾形)의 대지가 있다는 수려한 마을이며, 정평이라고도 부른다. 구술자는 ‘숫동메’라고 발음하였기에 틀리는 대로 작성하였다. (서천군청 홈페이지, 지명유래(https://www.seocheon.go.kr/kor/sub06_06_01.do) 참고)

3) 황소배산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에 있다.

4) 성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미력리 일부를 합하여 성산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성산 남서쪽 마을을 미력굴이라 하는데, 백제 때 남녀 미륵상이 있었다 해서 미륵굴이라 하다가 변했다고 한다. (서천군청 홈페이지, 지명유래 참고)

● 선생님 기억 속에 고향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주세요.

옛날 시골이야 어딜 가도 다 똑같았어요. 밭농사, 보리농사, 논농사 짓고 땀감은 산에 가서 나무로 다 했어요. 그리고 수돗물도 아니고 우물 길어 먹었고. 논농사, 밭농사. 그것도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예 가난한 사람은 논 하나, 밭떼기 하나 없는 사람도 있었죠. 세작⁵⁾이라고 그러냐? 1년 동안 논 한 마지기에서 쌀이 석 섬 나오면 두 섬 주고 한 섬을 먹나, 한 섬 주고 두 섬 먹나 그런 식으로 땅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거라도 해야 풀칠을 하니까. 그리고 정 없으면 봄에 보리 나올 때 그게 보릿고개잖아요. 그러면 겨울 양식, 작년에 지었던 고구마니, 뭐니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때쯤 보리가 어느 정도 나와서 조금 누렇게 돼요. 그러면 벨 때가 아닌데도 그걸 대가리만 따다가 찌요. 가마솥에 다 찌서 막 문질러서 껍데기가 벗겨지면, 그 보리알이 푸르스름하게 나오죠. 그걸 날로 먹어도 맛있는데 밥을 해 먹었어요. 미리 당겨먹는 거예요. 아직 덜 익은걸. 왜?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가서 돈 빌려 오는 게 아니라 쌀, 보리를 빌렸어요. 쌀 한 가마 빌려오면 이자가 가을에 쌀 한 가마 반을 갚아줘야 돼. 5할 장리(長利)⁶⁾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무서운 거죠.

5) 소작.

6) 돈이나 곡식을 빌려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래 빌려준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변리(邊利).



1950년대 농촌풍경(출처: 국가기록원)

● 살던 곳이 바다랑은 좀 거리가 있었나 보네요.

바다하고 많이는 가깝지 않았어요. 완전 바닷가는 아니고 한 4km 떨어졌어요. 완전 바닷가 같았으면 아마 고기라도 잡고, 고둥 줍고 해서 조금 나았을 텐데. 우리도 한 번씩은 바다를 나가긴 하죠. 그냥 물 많이 나갈 때는 사리⁷⁾때라 해가지고, 한 1km 나가면서 막 잡아요. 근데 욕심에 잡기는 잡는데 다시 나오려면 기운이 없어. 그리고 또 거기서 한 4km 걸어서 집에 와야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차로 가고, 경운기로 가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무조건 걸어서 가고, 요즘처럼 도시락 싸서 가고 그런 형편 아니거든요. 가서 욕심에 잡는데 올 때는 엄청 힘들었죠. 무거우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7) 달이 그믐이나 보름 직후 조차가 가장 클 때.

어머니가 모시 팔고 오시면 그날이 사탕 사 오는 날이었죠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지으셨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했어요. 풀, 나무뿌리 먹는 것도 했고.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는 길쌈을 많이 하셨어요. 서천 한산세모시가 유명하니까 그거를 주야(晝夜)로 하셨죠. 베 꺾데기 까서 물에 담갔다가 날리고 짜서 시장에 나가요. 베 시장은 꼭 새벽에만 열렸어요. 왜냐하면 모시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낮에는 모시가 부서지니까 새벽 한 4시쯤 새벽시장만 열려요. 모시 가지고 시장에 가면 그날이 어머니가 모시 팔아가시고 사탕 사 오는 날이었죠.

● 어린 시절 그 주변 사람들의 생업은 대부분 어떤 것이었죠?

생업이라는 거는 천상 농사, 농업이에요. 농업하고, 그 모시, 삼베.... 우리가 서천군이니까 한산이 있잖아요. 한산이 세모시로 유명하니까 우리는 모시를 했어요. 삼베에 풀 먹이면 서억 떠요(뽕뽕해져요). 그러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죠. 여름에 머슴들은 삼베를 입어요. 근데 돈 많은 영감님들은 모시를 해 입어요. 모시는 하얗잖아요. 그놈 풀 먹여서 다림질 하면은요 진짜 폼나죠, 하얘가지고.

● 어머님은 낮에는 농사도 지으시고, 밤에는 툼툼이 길쌈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시를 다 이빨로
쫓개요. 그리고 이게 또 모시가
(한 팔을 위로 뺏으며) 이렇게 커
요. 그러면 그걸 베어서 꺾데기를
벗겨요. 꺾데기를 벗겨서 쇠로 된
날이 (도구 모양을 묘사하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로 베긴 뒤



삼칼(출처: 이뮤지엄)

를 문질러서 속껍질을 한번 까줘야 돼요. 그러면 속에 거가 이제 노
랳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머리 쪽으로 엮어서 흐르는 시냇
물예다 가져다 이삼일 담가놔요. 그러면 색이 하얗게 바래져요. 그러
면은 그거를 갖다가 쨌 다음에 머리하고 콩지를 무릎 위에서 비벼서
이어줘요. 그러면 안 풀려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
죠.

● 그 작업하는 동안 동네 어른분이나 뭐 그 친척들이 와서 도와 주셨나요?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많이 했어요. 모시 맨다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는 좀 도와줬어요. 그 이은 걸 갖다가 50가닥이고 100가닥이고
쫓 늘어놓고 아래에 쌀 꺾데기로 불을 붙여놔요. 그러면 그거는 불꽃

이 없고 그냥 타기만 하니까 열만 있어요. 풀뿌리가 억센 걸로 술을 만들어서 콩물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밑에 열이 있으니까 마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감아줘요. 감아주면 안 바른 게 감은 만큼 오잖아요. 그러면 또 콩물을 맥이고, 조금 있으면 말라요. 그렇게 계속 해서 다 감아지면은 나중에 베틀에다가 갖다 걸어놓고 짜는 거죠.



베매기 작업(출처: 국가유산청)

● 옷감 짜는 베틀 같은 게 다 있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다 있었죠.

● 선생님도 같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북 감는 거는 했어요. 남자들은 다른 건 안 하고 그 북 속에 들어가는 ‘꾸리’라고 고거는 했어요. 옛날에는 처음부터 해서 옷감까지 짜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팔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꾸리라고 실을 감어요. 그러면 둥그랴게 돼요. 그걸 북에다 넣으면 속에서부터 이게 끌리거든요. 그러면 가로 실이 북에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짚어요.



모시울 꾸리감기(출처: 국가유산청)

● 어머니가 길쌈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거의 2000년대까지 했는데요. 그 뒤로는 인제 어머니가 베를 짜지는 않고 길게 만드는 것만 해서 한산 쪽에다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쪽 사람들이 베를 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손이 달리니까.

● 농사하고 길쌈해서 얻은 소득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논이 없고 밭만 있으면 고구마를 많이 심어요. 고구마를 많이 심으면 막 20가마, 30가마를 해요. 지금은 고구마가 크면 가격이 안 나가지만 그때는 커야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쪽쪽 쪼개서 밥솥에다 올려놔서 찌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수깁대를 엮어서 고구마 넣고 싸 놓으면 그리고 그게 겨울 양식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게 겨울 양식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바구니 이고 장사도 하셨어요. 참외철에는 참외, 복숭아철에는 복숭아. 그걸 가지고 가면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쌀, 보리하고 물물교환했어요. 돈으로 사라고 하면 돈들이 없어. 근데 쌀독에 가서 쌀 한 바가지 퍼갖고 바꾸는 건 좀 쉽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 팔고 올 때도 똑같이 무거운 거야. 돈으로 갖고 와야 가벼운데... 그러면 이제 엄마 올 때 혹시 뭐 사갖고 오나 안 사갖고 오나 여러 번 쳐다보지. 그랬었지.

봄이면 누님들이랑 어머니랑 깊은 산으로 고사리 꺾으러 가고

● 1950년생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전쟁 때 부모님이 피난은 가셨다고 하시나요?

6.25 터지고 어머니가 저를 업고 산골에 외갓집으로 피난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데리고, 누님 두 분하고 할머니랑은 집에 있고. 아버지 혼자였어요. 누나 둘 낳고 아들이라고 낳으니까 참 오냐오냐, 금이야 옥이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만 데리고 피난을 가셨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 선생님 팔 남매라고 그러셨는데 위로 누님들이 계셨나요?

위로 큰누님, 작은누님 계시고, 제가 셋째예요. 그리고 내가 장남이고 남자로서. 내 밑에 다섯 살 먹은 애가 하나 세상을 떴고, 또 그 밑에 두어 살짜리 여동생도 하나 세상을 뜨고.... 그 밑으로 동생이 다섯 있습니다. 남동생 둘이고 여동생 셋, 그렇게 3남 5녀 그랬죠.

● 돌아가신 동생분들 아프셨던 건가요?

잘은 모르는데 뭐 그렇겠죠. 옛날에는 홍역이나 그런 걸로 많이 세상 떴죠. 옛날에는 애기가 죽으면 낮에 안 갖다 묻고 밤에 갖다 묻었어요. 그래서 여동생 묻을 때는 내가 엄마, 아빠를 한 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땐 내가 조금 컸었으니까, 한 열 살이나, 열 살 좀 넘었

거나 그랬었죠. 동생 산에 묻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는 산에 가면 돌무덤이 있었어요. 애들 죽으면 흙으로 덮어놓는 게 아니라 돌로 덮어놨었어요. 그게 애장(애葬)⁸⁾이에요. 아기들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방마다 방언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 형제간 우애는 어떠셨어요? 형제분 중에 누구랑 가장 친하게 지내셨어요?

아주 나쁘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위에 누님들하고 제일 친하고 그랬죠. 누님하고는 두 살, 두 살 이렇게 차이 나고, 지금 살아 있는 바로 밑에 동생하고는 9년 차이예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 고향에서 형제들하고의 기억은 어떤 게 있나요?

기억이라고는 다른 거 없죠. 봄이면 누님들이랑 어머니랑 같이 깊은 산으로 고사리 꺾으러 가요. 진짜 옛날에는 깊은 산속 가면요 시커먼 고사리가 엄청났어요. 그러면 그걸 구력⁹⁾이라고 망태기 같은 데다 담으면 이놈을 엄마 누나들이 짊어지고 오고, 또 여름이나 그럴 때는 바닷가가 한 4km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칠계라고 하는데 칠계보다 조금 더 큰 계가 있었어요. 땅 파가지고 그런 거 잡어다가 우리가 먹기도 하고 어머니가 이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8) 아이의 시체가 묻힌 무덤.

9) 새끼를 드물게 떼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그릇.

● 집 주변에 친척들이 모여 사셨나요?

집성촌은 아니라도 주변에 고모네라든지 일가가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독자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사촌들은 계셨는데 한 5, 6km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때는 무슨 일 있어도 걸어가고 걸어 오고 하는 시대고 버스 타서 버스 길에 닿는 데가 아니니까 잘 안 다녀졌어요.

열아홉 살, 스무 살 먹은 동창들도 있었어요

● 선생님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나요?

제가 초등학교를 두 군데 다녔어요. 한 번은 충남 보령군 주산면에 있는 수곡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수곡국민학교를 다니다 4학년 때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비인초등학교, 거기를 다녔는데 제가 거기 49회 졸업생이에요. 학교가 꽤 오래된 학교죠. 지금 벌써 몇 년이예요? 벌써 육십 년이 넘었으니까, 백년이 훨씬 넘었겠네요.

● 학교를 옮긴 이유가 있나요?

그게 거리는 멀지는 않아도 군(郡)이 다르니까 전학 가야 한다더라고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군계라는 데가 있어요, 이 군하고 저 군하고 경계. 그 근처에 살면 여기도 초등학교 있고, 여기도 초등학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 동네로 이사 가면은 군이 다르니까

이사하라고 그래서 학교를 옮겼죠.



2024년 비인초등학교 전경(출처: 카카오맵)

● 지금 연락하는 동창들이 계세요?

한참 연락을 하고 그냥 몇 번 만났었는데 서로 그게 잘 안되더라고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섯 명이 만났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세상
을 떠나는 바람에 그냥 해체했죠. 이제 시골에 가면 친구들은 다 객
지로 떠나가기도 하고, 벌써 몇 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 어릴 적에는 어떤 걸 하고 노셨나요?

앞에 개천이 있어서 발가벗고 풍덩 뛰어들어가고, 그 위에 저수지
가 한 100m짜리가 있었는데 그냥 헤엄쳐서 건너가서 남의 밭에 가

서 참외 따서 하나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들 전부 옛날에는 도둑이 아니고 서리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땡길 때 옛날에는 그러면 그냥 혼나거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수원 가서 한 번 과수원이나 참외, 수박밭에 가서 그런 거 하다 걸리면 밭 물어 줘야 돼죠. 겨울에는 이제 쥐불놀이를 해요. 산에 가서 소나무 베고 나면은 조금 썩 남는 거 있어요. 그게 나중에 송진이 뭉쳐져서 그게 광솔¹⁰⁾이라고 그래요. 그거 깡통에다가 넣고서는 막 돌리다가 남의 집도 태워 먹고.

● 직접 그런 사고 치신 일도 있으세요?

나는 그거는 안 했는데, 또 이 논에 물을 이제 자작자작 가뒀놓으면 얼어요. 거기서 썰매 타고 놀다가 또 그게 깨지면 양말이 젖으니까 벗어. 벗어서 불 놓고 쪼다 보면 옛날에는 나이롱 양말이니까 그게 또 빵꾸나고 그래요. 그냥 빨리 말리고 싶은 생각에 가깝게 대면 오그라드는 거예요. 또 그거 빵꾸나면 꺾어서 신고 그랬죠. 그리고 콩 벨 때 사선으로 베니까 옛날 검정 고무신은 거기 걸리면 이렇게 쪽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 또 집에 가서 혼나고 엄마가 장날 가지고 가서 몇 푼 주고 때워 갖고 와요. 그땐 밀창만 괜찮으면 계속 때우고 신었어요.

10) 관솔의 방언.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를 말한다. 불이 잘 붙으므로 예전에는 여기에 불을 붙여 등불 대신 이용하였다.

● 학교 다니시면서는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저도 학교를 열 살에 갔어요. 갔는데 열아홉 살, 스무 살 먹은 동창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6.25가 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여자들은 다 안 보냈어, 일하라고. 근데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해서 늦게 오면은 1학년으로 들어와요. 1학년 마치면 3학년 올라가요. 3학년 마치면 6학년 올라가서 3년만 다니고 졸업하는 거야. 많은 누나들이 그랬어요. 나도 열 살에 갔어요. 빨리 안 보내서. 그때는 부모님이 보내야 가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름도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는 게 아니라 동네 이장한테 얘기하는데, 가서 이름도 엉뚱한 이름으로 올려 놓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불리는 이름하고 호적에 올라간 이름하고, 이름이 두 가지씩 있어요.

● 선생님 달리 불리시는 이름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진규라고 불렀어요, 바로 밑에 동생도 순규였는데 지금 호적상에 장규예요. 옛날에는 아버지들도 학교 안다녔잖아요. 동네 이장에 그걸 꼼꼼하게 적어 갖고 가서 고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아 우리 애 좀 올려 줘.” 하면 그냥 올려놨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양학을 다니셔서 한글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차 타고 땡기는 거, 뽕고 계산하는 거 다 본인이 하셨어요.

● 어머니가 자녀분들 많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바쁘고 가진 게 없으니까 많이 가르치지 못했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인제 삼 형제 중에 막내를 제 형수(구술자의 아내)가 시골에서 데리고 올랐어요. 그래서 저 남산에 리라국민학교 옆에 그 그때 남산공전¹¹⁾인가 있었어요. 거기 넣어줬죠. 그래서 거기 다니고 자기가 이제 직장 들어가서 동양공전¹²⁾ 2년제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2년제 해서 합계 4년제를 졸업을 했죠. 삼 형제 중에 제일 많이 배웠죠.

● 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상경을 하신 거예요?

시골에서 부모님 농사일을 지어드리고, 겨울에 나무도 하고 그렇게 도와드리다가 이제 객지로 올라왔죠.

11) 남산공업전수학교를 말한다. 1992년 리라공업고등학교, 개편되었고, 현재는 리라아트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12) 동양공업전문대학. 2012년 동양미래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부

지금까지 이 계통으로만
외길로 왔어요



미아리고개 그 산꼭대기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졌지

● 서울로 올라오실 때가 언제쯤일까요?

그게 열여덟, 열일곱 살…. 그러니까 한 67-68년 그쯤일 거예요.

● 상경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구정 무렵에 그 동네 우리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종 형님이 오셨어요. 나보다 한 살 많은 이종 형님이 “형이랑 같이 가자.” 해서 따라온 거예요. 계기나 내가 서울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형님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왔죠.

● 올라오실 때 교통수단은 기차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예, 장항선이라고. 그때는 서부역¹³⁾에서 장항까지 가는 게 종착이었어요. 지금은 전라북도 금강에 다리를 놔서 종점이 장항이 아니고 익산이 종점이에요. 그리고 한 대인가 두 대인가는 서대전까지 가니까 호남선이랑 연결이 되지만 옛날에는 경상도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서천 오려면 무조건 천안까지 갔다가 장항선을 타고 내려와야 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죠.

● 처음 서울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아무래도 시골 촌놈이 서울에 올라오니까는…. 그게 또 밤에 올라왔어요. 그때는 완행열차라 장항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은 보통 여섯 시간, 일곱 시간 걸렸어요. 그거 타고 오니까 서울에 어두워져서 도착했을 거예요. 저 돈암동 미아리고개, 그 산동네를 걸어서 올라가지고 하룻저녁인가 이틀 저녁 자고 다른 곳으로 갔었죠. 울었어요, 첫날은. 미아리고개 딱 그 산꼭대기서 보니까 참 고향이 그립고, 부



모가 당장 보고 싶고 그립더라고요. 뭐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죠.

1960년대 미아리고개
(출처: 서울기록원)

13) 서울역의 서부역을 말한다. 원래 장항선의 시종착역은 서울역이었으나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용산역이 시종착역이 되었다.

● 왜 미아리고개로 오시게 된 건가요?

우리 이종 형님을 따라 서울역에서 내려서 간 게 거기였어요. 이종 사촌, 작은아버지 덕이 거기 산동네 살았어요. 그때 전차가 을지로4가에서 여기 돈암동 태극당 앞이 종점이었어요. 거기서 개운산 그 쪽 대기까지 올라갔죠. 거기에서 뚝섬 어느 공장으로 소개받아서 갔어요.

● 그 공장은 뭘 만드는 공장이었나요?

액자 틀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지금 액자, 유리, 표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액자 재료를 만들던 공장이었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런 계통으로만 외길로 왔어요. 옛날에는 액자라고 안 하고 사진 각구¹⁴⁾라고 그랬어요. 그 액자 틀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나무가 귀했고 많이 부족하니까 가늘게 모형을 깎은 후에 석고를 입혀가지고 그걸로 액틀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만 하게 그 틀이 있어요. 삼각이면 삼각,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대로. 석고가 내려오면 여기서 밀면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가다[型]¹⁵⁾ 모양이. 반달이면 반달, 삼각이면 삼각 모양이 나와요. 그런 거 만드는 공장에 갔었어요.

14) 사진을 넣어 보관하는 액자의 경상도 방언.

15) 가다(かた[型]): 형, 본, 거푸집.



제일사 내부에 있는 액자

● 그 공장은 어떻게 알고 가시게 되셨나요?

그 공장 사장님이 고향분이었어요. 고향 사람이 일찍 올라와서 서울에 자리를 잡은 거죠. 동네에서 소개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냥 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디서 일하셨나요?

독섬 공장에서는 배고팠어요. 냄비에다가 밥을 한술 하면 한 셋인가 같이 일했는데 그럼 딱 반절 나누고, 삼등분해서 이걸 아침, 이걸 점심 그런 식으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왜간장만 먹었어요. 근데 나는 왜간장으로 먹으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맨밥만 먹었어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독섬 공장에서는 배고팠죠. 한 달 월급이

2,100원이었어요. 호떡 하나가 5원 하고, 전차가 한 번 타는데 2원 50전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얼마 정도 있다가, 그 공장 공장장님이 잘 봤는데 여기 대학로 이화예식장¹⁶⁾ 건너편 쪽에 자기 형님이 하는 공장을 소개시켜 줬어요. 거기서 일하면서는 조금 돈을 더 받고, 밥도 좀 많이 먹었죠.

● 그 공장도 같은 일을 하는 곳이었나요?

거기는 조금 다른 일을 했어요. 캔버스 만들고, 그림 그릴 때 받쳐 놓는 이젤 같은 걸 만들었어요.

● 그곳에서는 얼마 정도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도 제법 오래 했어요. 몇 년 했어요.

● 공장 근방에 집을 구하셨나요?

대부분 그때는 공장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자취하는 식으로 밥도 해 먹고, 방이 없으면 바닥에 이불 깔고 바닥에 자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이불을 딱 개어서 두고, 또 작업장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어디 방 얻거나 출퇴근하고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합판이니 뭐니 깔고, 이불을 하나 깔고, 하나 덮고 그러고 자는 거죠.

16) 종로구 연건동 195-10에 있던 예식장을 말한다. 이화예식장은 1964년~2011년까지 운영하였다.

● 그럼 퇴근하고, 일 끝나고 여가에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때는 뭐 또 그렇게 갈 곳도 많지 않고. 쉴 때나 어쩌다 종로5가 가면은 동대문극장하고 한일극장이 있었어요. 그런 데 한 번 가서 영화 한 프로. 가면 그때는 개봉관이 아니라서 두 편, 막 이렇게 보여줄 때예요. 가서 그거 한 편 보고 나와서 포장마차에서 계란 몇 개 사 먹고. 그러면 최고죠.

집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예뻐어요

● 사모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시골에 계신 우리 당숙모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집사람 고향도 전라북도 군산인데 만나던 시기가 이리역 폭파 사고¹⁷⁾ 났을 때예요. 77년도에 만나서 6개월인가 교제하다가 78년도 1월달에 나는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결혼했죠.

● 사모님 만나셨던 해를 이리역 사고로 기억하시네요.

왜냐면 내가 봤어요. 거기서 내려서 군산에 열차타고 다시 들어갔으니까 군산 가려고 하면 이리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야 돼요. 그때 가보니까 역이 다 망가져서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군산

17)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이리역(현 익산역)에서 발생한 열차 폭발사고이다.

으로 간다는 뜻말 보고 가서 타고 그랬죠. 얼마나 큰 사건이었어요.



이리역 폭발 사고 현장(출처: 국가기록원)

● 사모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뻐어요. 집사람 키도 컸지마는 처음에 만났을 때 빨간 롱코트를 입었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내가 그때 스물아홉인가 뭐 그렇게 먹었을 때고, 집사람은 그때 스물둘인가? 나하고 7년 차이 나는데, 아니 진짜 키도 큰데다 빨간 롱코트 입고 그러니까 진짜 예뻐어요.

● 사모님은 선생님이 마음에 드셨대요?

싫어했죠. 그 전에 한 번 만나고, 이리 폭발 사고 나고서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 못했을 거예요. 서울로 온다고 해놓고 안 올라오니까 내가 야간열차 타고 찾아간 거예요. 그게 12월 31일이었는데 호남선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서너 시간 계속 서서 가면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 사랑은 용감했네요.

근데 결혼하고 미안한 거가 하나 있는데, 집사람을 바로 서울로 데려오지 못하고 시골 산골짜기 집에 6개월을 있었어요. 아무래도 산골이다 보니까 집사람이 엄청 무서워했었죠. 아버님이 그때 편찮으셔서 어머님과 어디 기도원에 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생하고 시누이들 어린데 데리고 그렇게 고생을 좀 했던 거죠. 근데 끝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우리가 유교인데도 고모님이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니까 기독교 나가서 하면은 낫는다고 이러니까는 어머니가 모시고 다녔어요. 저기 독립문도 있었고, 광주, 전라도 그쪽으로도 갔었고…. 아프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허사였고요. 하여튼 위암이셨는데 수술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죠.

● 아버님 치료를 포기하실 때 대단히 심정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수술해도 돌아가시고 안 해도 돌아가신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해요. 저 애들 많아요.’ 그랬어요. 제가 동생들 키우고 살려면…. 그때는 보험 같은 게 일절 없으니까 수술을 하려면 빚을 져야 돼요. 병원에서 수술하면 낫는다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제 생존하기는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한 일 년인가 있다 떠나보냈죠.

● 그럼 그 후에 이제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 서울로 올라와서 미아리고개에 신혼집을 차렸죠, 저 산동네는 아니고 바로 미아리고개 바로 올라가서 바로 살짝 내려가 보면 우측에 건물이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 수도학원 자리예요. 지금은 신설동 가면 수도학원이 엄청 크게 있는데 원래 거기가 본 자리예요.¹⁸⁾ 그 뒤편에 살았었죠.

제일사라는 이름이 여지껏 그렇게 왔어요

● 결혼하시고 나서도 대학로 쪽에 있던 공장을 다니신 거예요?

아니예요. 결혼하기 전에 거기는 그만뒀고, 다른 데서 일 조금 하다가 결혼했어요. 월급이 우리 쪽이 약했어요. 와이프한테 그걸 갖다 주는 게 조금 미안하고 쑥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편에 집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액자 만드는 공장을 시작 했어요. 만드는 것도 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시내 액자 가게 같은 데 갖다가 팔아달라고 위탁도 했죠.

18) 수도학원은 성북구 돈암동 19-95번지에 있었다.

● **공장은 혼자 운영하신 거예요?**

나 혼자 하면서 집사람이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랬죠.



제일사 내부

● **작게 시작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열 개, 스무 개 만들면 그놈 갖다주고 또 돈 생기면 재료 또 사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성북동으로 들어온 거죠.

● **성북동으로 오신 건 언제인가요?**

79년 3월에 이사 왔어요. 성북동에서 46년째 살고 있습니다.

● **이사할 때 제일사도 같이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전에 시내 무교동에서 어떤 사람이 하던 걸 인수했는데 그게 ‘제일사’였어요. 그걸 인수받아서 하다 보니까 제일사라는 이름이 여지껏 그렇게 왔어요. 제일사 하면 유리 액자 가게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썼던 거죠. ‘제일 유리’, ‘제일 액자’ 이러면은 귀에 들어올 텐데 그 집이 제일사라고 해 놓은 걸 인수하다 보니까 그냥 여지껏 제일사여.



제일사

● 액자, 유리뿐만 아니라 표구도 하시던데 표구가 어떤 작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표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족자, 두루마리 이런 게 있고, 액자가 있고. 표구는 한지, 화선지에다가 동양화 물감으로 동양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액자로 만드는 걸 표구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려 오면 그 한지가 한 장이니까 그걸 뒤에다 한 장을 덧입혀줘야 돼요. 그래야만 종이가 찢짱해져요. 그림이 A4 용지 크기면은 A4 용지보다 크게 뒤에 한지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먼저 그림에 물을 싹 뿌리고 펴서 우는 걸 없애고, 한쪽에는 풀을 묻게 해서 바른 후에 그걸 그림 위에다 놓고 싹 문질러요. 그리고 크게 자른 종이 가에만 풀칠을 해서 합판 같은 데다 붙여놔요. 그러면은 여름 가을 때는 몇 시간, 겨울 가을 때는 뭐 하루 정도 되면 말라요. 마른 후에 대나무 같은 거 납작하게 깎은 걸 오려 끼우면, 그냥 판판하게 펴져요. 그러면 그걸 딱 사이즈에 맞게 오려서 판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게 표구고. 족자, 두루마리는 딱 펴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비단을 발라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한 번 큰 종이를 붙여요. 짹 펴지라고. 펴진 걸 떼어가지고 이제 일본말로 시아게¹⁹⁾ 한다고 그러죠. 그 가에 칼질로 깨끗하게 오려내요. 그리고 아래위로 나무 달면 그게 두루마리 족자가 되는 거예요.

19) 시아게(仕上げ): 마무리, 최종 공정

● 그런 기술은 따로 배우신 건가요?

배운 게 아니고요. 액자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맡긴 일을 다시 맡아서 해주는 집이 있었어요. 조금 저렴하게.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좀 붙여서 손님한테 받는 거죠. 저쪽에서 1만 원 하면 우리는 뭐 1만 5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주고서 이려고 너머로 쳐다보고, 또 이려고 쳐다보다가 표구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 액자나 표구일을 배우셨을 때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건 없었어요. 액자 만드는 건 뭐 우리 손가락이 짧아서 이제 부지런하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손재주는 있어가지고 곧잘 했고, 그냥 해서 그리고 또 모르는 거는 공장에 일 갖다주면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하고 보고 와서 내가 실험해 보고, 실습해 보고 해서 한 거예요. 표구는 원래는 못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냥 어깨너머로 액자 일 하는 데서 점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습득하는 거죠. 배접하는 거, 또 비단 바르는 거, 선 넣는 거, 이렇게 조금씩 보고,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패도 했죠. 남의 물건 버려가지고 아주 애먹은 적도 있고.

● 고가의 작품들도 표구해 보신 적 있나요?

있지요. 있는데 좋은 거는 사이즈만 재고 가지고 갖다가 우리가 그림만 붙이게끔 다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준비해 놓고 하루 정도 있다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와서 맡겨놓고 사이즈 재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왜냐면 분실할까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잠깐 저 옆에만 가더라도 문을 잠그고 가니까 뭐 그렇게 문을 잠그냐고 하는데 내 거는 괜찮지만, 남의 거는 잃어버리면 그게 돈이 얼마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옆집을 가더라도 잠가요. 제일 애로사항이 남의 거 분실했을 때거든. 또 한번은 시내에서 손님이 물건을 맡긴 걸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왔는데 가게에 와 보니까 없어. 그걸 어디 가서 찾아요? 아주 난감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결혼사진도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한 장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죄하고, 다시 갖고 오면 우리가 그냥 해주겠다고, 양해 구하고 그랬었죠. 남의 거 잃어버렸을 때가 제일 난감하죠.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 표구나 액자할 때 쓰는 도구들 한 번 소개시켜 주세요.

붙임 작업할 때 쓰는 붓솔도 두 가지, 세 가지가 돼요. 배접할 때 쓰는 물풀비가 있고 또 그걸 붙여놓고 하면 문질러주는 풀비가 있고 또 액자에다 붙일 때 또 꼬트머리만 하는 풀비가 있고 또 그 수 자수는 등허리가 얼팅덜팅(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놓으면 종이가 등으로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두꺼운 솔로 그놈을 탁

때려요. 그러면 종이가 들어가는 거죠. 면도칼 하고 자도 있고….

● 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니예요?

옛날에는 대나무자 90cm짜리, 60cm 자 있었는데 그것도 일본말로 배웠어요. 이치부[一分]²⁰⁾라고 하면은 3mm예요. 그런식으로 다 일본말로 배우다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자로 했어요. 한 자, 두 자, 일본말이 아니고 한 치 두 치 이런식으로.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미리(mm)로 써요. 지금은 거의 다 미리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액자하는 것도 거의 다 미리로 하는데 아직도 조금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로 써요.



평소 사용하는 작업 도구들을 설명하는 이만규 구술자

20) 이치부(いちぶ, [一分]): 1푼(한치의 10분의 1)

● 그리고 액자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술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 뭘 하면 안 되고, 천상 풀을 잘 써야 해요. 표구를 하려고 하면 풀을, 밀가루를 한 일주일 담가 놔야 돼요. 제대로 할라 그러면. 그러면 그 밀가루의 독성이 빠져나가요. 물을 갈아주면서 일주일 동안 담가둔 그 풀로 하면은 깨끗하고 곰팡이가 좀 덜 나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 드려도 보관을 잘 해야 돼. 건물 안 중간 벽에다가 액자를 걸면 곰팡이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외벽 쪽에다 걸면 곰팡이가 나. 왜냐하면 겉에 유리가 씌워져 있는데 습기가 들어가면 안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게 곰팡이로 변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중유리가 뿌연 집 있죠? 그게 불량이에요. 바늘구멍 하나 있는데 거기로 물 한 방울만 들어가서 뿌예지면 그건 유리 교체하기 전에는 안 없어지죠.

● 유리나 표구 외에 두루마리, 족자 이런 종류는 안 하세요?

족자하고 병풍은 조금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주문 오면은 공장에다 맡기고 이제 거기서 옷돈 조금 얻어먹고 심부름해 주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인사동도 있지만 정릉이나 이런 데서도 가정집에서 시내에서 물건 맡아서 갖다주고 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공장을 안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갖다가 해다 주고 그랬죠.

그래도 돈이 들어오면은 피곤하지 않아

● 선생님 가게 여셨을 때 주변에 액자 가게나 표구사가 많았나요?

당연히 이 동네에 많았죠. 표구사가 나하고 액자 하는 사람, 이렇게 둘 있었고요. 우리 가게가 나까지 셋이 있었어요. 우리집이 나하고 셋, 또 표구집 하나,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동네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도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포세는 비싸고 일은 적고 그러니까 다 이제 없어졌죠.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유리 끼우러 가면은 일당만 한 23만 원에서 25만 원 줘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그만큼 소득을 남기려면 반절 남긴다고 하더라도 50만 원 팔아야 돼요. 50만 원이 뭐야, 5만 원도 안 팔릴 때도 있어.

● 그 표구사끼리의 어떤 경쟁 구도 같은 건 없었어요?

경쟁 그런 건 없었어요. 경쟁 구도 같은 건 없었고, 표구사 제일 많은 데가 인사동 쪽이니까 인사동 쪽에서는 좀 있었겠죠. 근데 이런 데서는 뭐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뭐 ‘너희가 이거 100원에 하면은 나는 90원 해줄게.’ 그런 경쟁까진 없었어요.

● 표구가 70~80년대에 많이 흥행했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
하기는 언제가 가장 장사가 잘 되셨나요?

그때는 서민들도 집에 한두 점씩 그림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했어요. 많이들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표구나 액자를 서양화도
그렇고 동양화도 그렇고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북동 잘 사는
분들은 여기 와서 별로 그런 거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세탁 같은 것도
백화점, 호텔에 갖다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북동은 뭐 부자 동
네니까 잘 되겠네? 손님 많겠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양반
들은 표구 같은 거 하러 인사동을 주로 갔어요.



작업하는 모습

● 그러면은 가게 운영하시면서 언제가 힘들셨나요?

분실 그런 문제 생기면 좀 힘들었죠. 그리고 IMF²¹⁾때 조금 힘들었고.

● IMF 때문에 사람들이 표구나 액자는 잘 안 했을까요?

오히려 요즘보다는 그때는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사무실을 내면 태극기하고 국민교육헌장, 공무원은 공무원 신조, 또 회사 같은 데는 사가(社歌) 이런 거를 액자로 해놨어요. 내가 이제 대우 거를 했었는데, 대우가 중동에 가서 아파트 많이 지었어요. 그럴 때마다 대우 마크, 사가, 태극기, 또 대통령 사진 이런 걸 액자로 많이 해놔서요. 김우중(金宇中)²²⁾씨는 그런 걸 해다가 외국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양반이 따지고 보면 애국자인 거야. 종이로 가져가면 없어지니까 태극기, 애국가, 우리나라 모든 걸 액자로 갖다가 다 해가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에 해갈 때 열 벌, 한 이십, 삼십 벌, 그러면 액자가 제법 많은 거죠. 한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되면 열 벌 하면 오십 개 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그 양반은 그런 게 재밌었어요. 밤중까지도 했고 날도 샌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돈이 들어오면은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있어. 막 내일 뭐 행사하고 밤일을 가서 힘들게 해. 근데 거기서 현찰을 딱 주면 피로가 싹 풀리고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예, 내일 드

21) 1997년 11월 우리나라가 가진 외화가 부족해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22) 대우그룹 초대 회장

릴게요.” 그러면 힘이 쏙 빠져. 못 받는 건 아닌데 그게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게 맞아요. 그 돈이 진짜 사람 죽이고 살려요. 컨디션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밤새고 일해도 그게 돈이 되니까 힘이 안 들어요.

● 지금도 그런 유리 끼우는 작업을 하세요?

예. 엇그저께도 하나 2m 10cm에 2m 50cm짜리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고 다섯 명이 들어서, 현 유리 빼내고 바꿔 끼운 거예요. 그런 거 끼우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옛날에는 집을 새로 지어도 나무도 작고, 때 전깃줄도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은 전선 늘어졌지, 나무는 크지. 사다리 댈 자리도 별로 없는 집이 많아요. 옛날에는 심어놔 봐야 그냥 1~2m짜리 심는 거 아니야, 그런 나무가 20년, 30년 되면 3층 높이 다 커요. 그리고 또 종로 큰길, 광화문처럼 선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성북동은 그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다리고, 스카이(사다리 차)고 대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유리 한 장 끼우는데도 가격이 비싸죠. 조건이 안 좋아서. 기계를 쓰고 싶어도 나무 때문에 못 쓸 때가 많아요. 또 잡나무 같은 거는 좀 가지치기를 해도 괜찮은데 소나무는 가지치기를 못하게 해. 인물이 바뀐다고. 조경에서 소나무가 제일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3부

선잠단지와의 30여 년



옛날에는 뽕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 79년도에 성북동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당시 성북동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완전히 그때는 여기가 막힌 길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시골 같은 동네였죠. 그저 이웃 간 서로가 알고 조기 축구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그냥 다 그런 친구들이니까. 시골, 그 때만 해도 시골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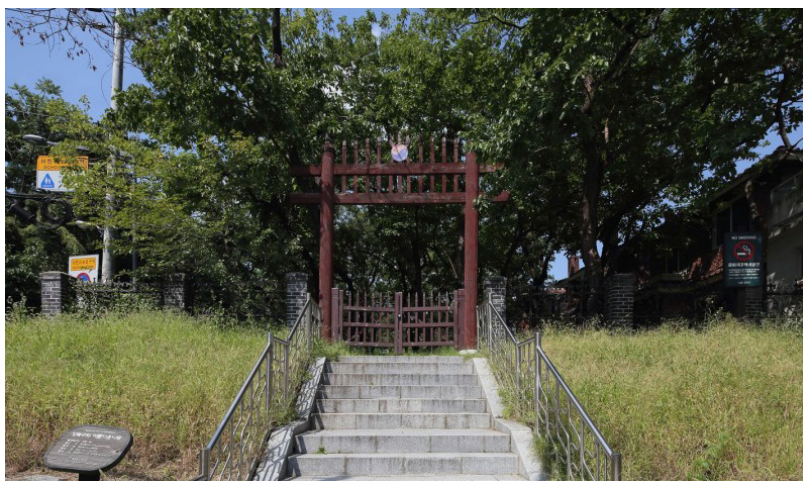
● 그 당시 선잠단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 하시나요?

지금하고 변함은 없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1m 정도 되는 나무를 심어놔었어요. 그게 몇십 년이 되니까 이렇게 아릅드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발굴한다고 그걸 베었어요.²³⁾ 말로는 종자가 일본 종자라고 해서 베었다고 하는데, 나무가 컸는데 다 베어버리니까 지금은 너무 썰렁해요. 옛날에는 우거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는 일본 종자라고 베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석축이 일본식이에요. 일본식은 석축이 삼각형(마름모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사하면서 앞에만 지금 네모지게 한 거죠. 우리나라 석축 담장 방식은 네모진 거예요. 선잠단지 옆에 석축은 일본식인데 그거는 이번에 개량을 안 했대요. 우리나라는 창경궁이고 덕수궁에 가보면 다 네모졌죠. 여기 한양도성 성곽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때(복원 공사할 때) 왜 다 하면서 왜 이 담장 석축은 안 고쳤느냐 그런 얘기 했었지. 그리고 옛날에는 큰 홍살문이 있었죠. 지금 있는 것보다 컸죠. 한 3분의 1 정도는 위로 더 올라가니까 좀 웅장했죠.

또 내가 왔던 79년도 그 무렵에 나무 한 1m 이런 식으로 심어놓게 그렇게 컸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선잠단지 앞쪽 거가 크고, 뒤편 거는 나중에 심어서 조금 작았었어요. 원래는 이 선잠단지 뽕나무밭이 성북초등학교 쪽 도로, 또 그 뒤편 거기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복원 공사)를 할 때 그 옆에 길을 깊이 파서 지하도로 만들고 위에 메꿔서 학교 담 하

23) 2016년 유적 정밀발굴조사 진행하여 옛 위치와 원형을 확인한 후 2020년 까지 선잠단지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다.

고 이어지면 그 터가 넓어지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우리들이 했었는데 먹히지 않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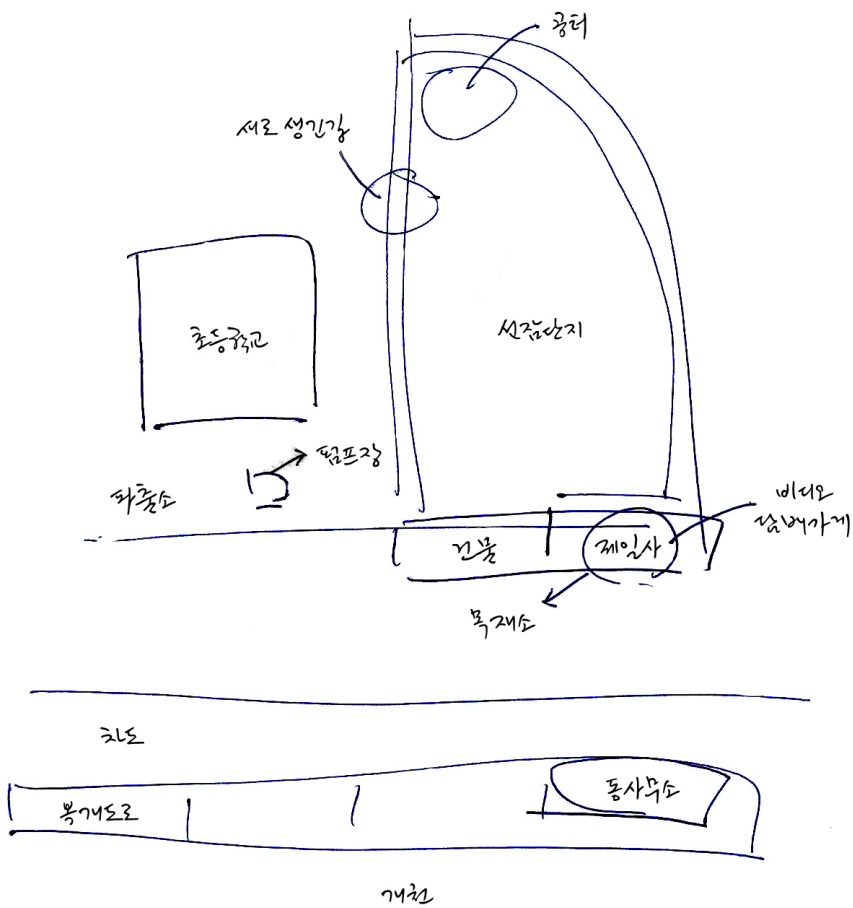


북원공사 전 선잠단지(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그 당시에 선잠단지 주변을 한번 그려주실 수 있나요?

저기 옛날에는 성북초등학교 담독 그리고 선잠단지 뒤에 빵집 있었는데, 공터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다 선잠단지였대요. 그래서 이 담독 위에까지도 다 그냥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하고 선잠단지 앞에 건물이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가게가 있었어요. 나도 여기서 가게했어요. 여기서 하다가 이 옆 건물에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갔지. 그리고 이 앞에 큰길 있는데 여기(성북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차 다니는 도로인데 여기가 원래 개천(성북천)이에요.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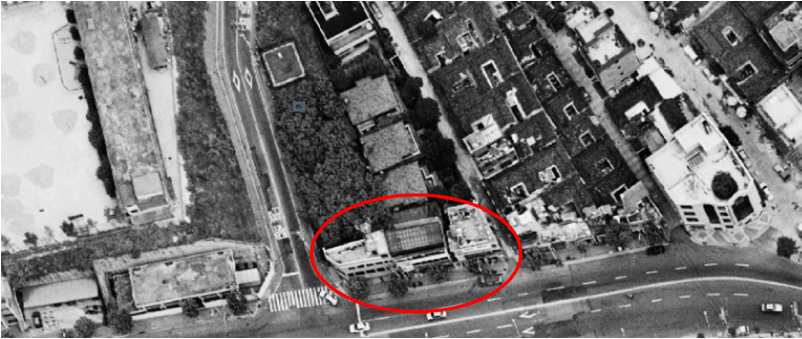
24) 1970-1980년대 성북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삼선교 상류 구간은 성북로로 이용되고 있다.



구술자가 그린 1970-1980년대 선잠단지 주변 약도

● 지금은 사라진 그 건물에서 선생님이 가게 운영하기 전후로 어떤 가게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원래는 목재소가 있었는데 목재소라서 건물 아래층 층고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나무 12자, 3m 60(cm)짜리를 가져다 세워놔야 하잖아요. 그다음 내가 가기 전에 페인트 가게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락을 만들어 살았어요. 가게가 워낙 높으니까, 애들하고 살림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제일사하다가 나중에는 비디오, 담배가게가 들어왔어요.



1997년 선잠단지 항공지도. 3층 건물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1998년 선잠제향 선잠단지 앞 건물과 꺾어서 들어오는 입구를 확인할 수 있다.

● 그 당시에 주민들은 선잠단지가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애들 들어가서 놀고, 학생들 들어가서 놀고 그랬었지. 이제 한참 후에 가서, 우리가 선잠단지 제향 한지도 벌써 3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담장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덜 들락거린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지킴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다가 연세가 많으니까, 저보고 “자네가 전주 이가라니까 자네가 하게.”, 그 양반도 전주 이씨였거든요. 그래서 한 게 발굴 작업 하기 전까지 제가 지킴이 했습니다. 지킴이를 하면서 월 4만 원, 주 8천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일지를 써내야 돼. 일주일에 뭐 뭐 했다고. 한 달 동안 써주면은 5주 했다 하면 4만 원 나오고 4주 했다 하면 3만 2천 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야, 나 연봉 48만 원이야.” 그런 농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던 일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 선잠단지 지킴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자체(지방자치 단체)가 생기고 선잠제가 부활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앞 전부터 내가 했어요.

● 원래 지킴이를 하셨던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일을 하셨는지 들어보셨나요?

그 할아버지도 바로 그 옆에서 수선 가게 하셨어. 수선 가게를 하면서 옆에 계시다 보니까 아마 채택이 됐던 것 같아요.

● 근처에 계시면서 말으신 거군요.

네, 그리고 저도 바로 그 옆에 있었고. 또 지금은 ‘조선 500년’ 하지만 옛날에는 ‘이씨조선 50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씨조선 500년’이라는 게 우리 이씨들은 그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그 ‘이씨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왕이 그걸 해왔으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그 영감님이 “자네도 전주 이가니까 말아서 하쇼.” 하시니까는 그 말씀도 맞더라고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던 거 뒤에서 협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윗분들 이어서.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 그렇게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신 건가요?

그때부터 언제쯤까지 했냐면 여기 발굴할 때, 발굴 전까지 했어요. 발굴하면서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거죠. 해라, 하지 말라 해고 통보도 없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 지킴이 하실 때 선잠단지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주말 같은 때 가서 청소하고, 입구 같은 데 잡풀, 계단 같은 데 잡풀도 뽑고, 그런 거 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디서 한 번 온다고 한 번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주고. 내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열어놔다가 그 사람들 얼마 있다 간다고 하면 내가 가서 또 닫아두고 그랬어요. 거기가 크게 흠쳐 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꼭 뭐 안 해도 됐고. 추석 전에 구에서 한 번씩 와서 예초기로 한번 청소 싹하고 풀 베어 주고 가고, 우리는 이제 홍살문 아래 연막탄 같은 거 뿌리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연기 나는 소독을 하잖아요. 내가 새마을 하면서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내가 오토바이 싣고 다니면서 소독했는데 뽕나무밭도 풀밭이



니까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나오고 그랬죠. 내가 지킴이니까 그렇게도 했었죠.

2014년 선잠단지 뽕나무밭
(출처: 국가유산청)

● **선잠단지는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 담 넘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래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나요?**

옛날에도 지금처럼 울타리는 있었어요. 있었어도 그거 타고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장만큼 높으면 넘어가기 어려울 텐데 중간중간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발 넣고 넘어가거든. 얼마든지 지금도 넘어갈 수 있어요. 저녁에는 조용하고 평지고 나무 그늘 밑이니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뭐 연애도 하고 했겠죠. 서울에서 그렇게 조용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타일렀지.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애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개네들 어떻게 덤빌지 모르는데 우리가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막 혼내지는 않았어요.

● **다른 재미난 추억도 들려주세요.**

옛날에는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뽕나무가 저 가로수 은행나무만치 컸어요. 저렇게 큰 나무가 한 20~30 그루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우러져서 들어가면 낮에는 그늘이라 시원하고 막 밑동도 굵직해서 나무에서 뽕나무 느타리버섯 그게 막 피어나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많이 달렸었어요. (양손을 20cm가량 벌리며) 이만하게 피어나면은 그걸 따다가 친구들하고 구워서 소주 한잔했죠. 그걸 몇 번 따다 먹었어요. 특혜 맞죠.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나무에 편상황이라고 이렇게 나무에 딱 깔리는 버섯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자라고 있었거든

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한다고 짹 비워버려서, “아이고, 아까워라. 나 두고 봤었는데 그거.” 그랬지.

● 선잠단지 복원하면서 발굴할 때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것도 구경하셨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는 발굴하고 한참 방치해서 웅덩이가 엄청 크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위험했어. 비 오면 거기가 물이 차니까 위험하잖아요. 혹시 누구라도 들어가서 헛발 디디면 위험하니까 그걸 빨리 메꾸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메꿨었죠. 하여튼 포크레인 작업을 나무 빼내고도 한참 했어요. 다 뒤져야 뭐가 나와도 나오니까.



복원공사 중인 선잠단지(출처: 서울시 미래유산)

● 얼마 정도 공사를 했나요?

그거 발굴하는 데만 한 2년 걸렸죠. 그게 몇 억 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돈도 많네.” 그랬거든요. 발굴하는 게 고고학적으로 오래된 유물 발굴해서 기록에 남기고 자료하고 그런 거긴 한데 우리랑 입장에서는 “아이구, 돈 들어서 별짓을 다 하네.” 그랬었죠.



2021년 복원공사를 마친 선잠단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시작된 선잠제보존위원회

● 처음에 선잠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아시나요?

우리가 지자체 하면서 구의원이 생겼잖아요. 여기 성북동 양반인 이민형 씨라는 분이 구의원이 돼서 구의장을 했어요. 그 양반이 1대, 2대, 3대까지 성북구의회 의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양반이 선잠제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 양반이 의장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무언가는 하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이 선잠단지에서 옛날 뭐 했다 이래서 부활을 시키신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예요.

● 선잠제 시작할 때 초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나는 잘 모르고 김현동 씨라고 총무 오래 보신 양반 있어. 제사 비용은 구에서 지원이 나왔고, 그 양반이 주관해서 음식이니 뭐니 이런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하면 돈 몇 푼씩을 주시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우리 봉사했어요.

● 처음 시작할 때 보존위원회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다 동네 분으로 했었죠. 거의 동네에서 가게 하고, 동네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임에 뜻을 갖는 사람들이지. 그때는 회장님을 금녕약국 김향규 씨가 하셨고, 김현동 씨가 총무님 했지. 그분들이 준비를 하면 우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행연습 한 번 하는 그

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친목계처럼 어쩌다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서 의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지해 나갔죠.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 여기가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조금 시골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갔어요. 제향 때 종교적인 거 가지고 절을 안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양반은 배제도 했어요. 구청장님도 자기가 기독교라서 참석을 안 하신 분이 있어. 구청장님이 초헌관인데 그 구청장님은 안 오셨어.



2024년 선잠제향 제관들

● 김향규 선생님이 회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따로 있었나요?

선출이 없어요. 김향규 회장님한테 그냥 하시라고 했죠. 그 전에 그 양반이 산악회도 하고, 마을금고 이사장님도 하고 그랬으니까 하시라고 해서 추대를 한 거죠.

●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이셨어요?

예.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약국도 하셨어요. 약국 정도 하시려고 하면 대학도 나오고 약사 자격증도 따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아시는 게 많으니까 추대를 한 거죠. 옛날에 나이가 든 양반 중에 대학 나온 양반들이 몇 분이나 돼요. 손가락 꼽을 정도지.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약사 하시면 무슨 대학을 나오셨겠다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초대 회장을 하셨어요.

● 위원회 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에서는 크게 활동한 건 없어요. 위원회끼리 1년에 몇 번 만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행사할 때만 모이는 거죠. 제관, 촛불 켜는 봉양, 뭐 술 따르는 거, 이게 자기들이 계속 해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으니까 1년 동안 잊어버렸다가도 그다음에 가면 몸이 따라주는 거예요.

● 지금 위원회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한 일곱, 여덟 분 되나? 글썄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도 옛날에 모일 때 하고 달리 이번에는 주관을 구에서 다 해버리니까 만나는 것도 적어요.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야 하는데 그게 없어졌어. 행사하기 전에 선잠박물관에서 연락이 오면 거기에 몇 번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벌써 오래되다 보니까 제항에 나오시던 위원

님들도 연세 드신 분 몇 분은 돌아가셨어요.

● **그 정도 규모로 꾸준히 유지해 오신 거예요?**

두 분인가 한 분인가는 들어왔다가 한 번만 하고 그만둔 양반이 있고, 새로 두 분이 들어오셔서 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양반들 못 하고, 또 세상 뜨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을 충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관복을 입고 절하기가 엄청 불편스러워요. 요즘에는 절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어른 만나면 큰 절하고, 운동 삼아서도 시켰다는데 지금은 거의 악수고 목례니까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절을 하려니까 힘들더라구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는 안 하세요?**

올해 두 사람인가 들어왔어요. 우리 처음에 하던 사람들은 다 70대가 넘었는데 50대 2명인가 들어왔어요. 인원은 꼭 10명을 채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서로 자기가 참석 못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체해야 하니까요.

선잠제 처음은 동네잔치였지

● 제례 같은 거 준비 할 때는 공부하시고 한 건가요?

우리가 했죠. 음식 같은 것도 옛날에는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저기 종묘제례(종묘제례보존회)인가 그쪽에서 다 해오니까 저희야 편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하고 나면 생고기 같은 거는 시간 있는 사람들끼리 삶아서 소주 한잔 저녁에 하고 그랬었죠. 동네 일이니까 그랬어요. 그 제복도 총무했던 분들이 다 마련했어요. 꿰매고 세탁해서 저기 문화원에 가져다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다 했었죠. 근데 지금은 따로 준비해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알아서 옷도 입혀주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 성북문화원에 옷을 갖다 놓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문화원이랑 처음 같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초창기부터 문화원하고 한 거죠. 문화원에서 옷 입고, 옷 벗고 다 했고. 문화원장이랑 그 밑에 분들 박사님들이랑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런 거 잘 아는 데가 없었잖아요. 무조건 그때는 문화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역사가 깊은 자리죠.



성북문화원에서 선잠제향 준비할 때 모습(2010년대와 2024년)

● 초창기에 선잠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그전에는 우리가 얼마를 받으면 총무였던 김현동 씨가 행사를 진행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선잠제 지낼 때 부녀회 이런 모임에서 와서 국수도 삶고, 부침개도 하고, 막걸리도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오신 분들 대접하면서 행사를 잘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젊었을 때니까 와서 같이 국수 삶고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가는 그걸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요즘에는 아예 종묘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예 음식을 해서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동네잔치였어요. 오면은 국수 한 그릇씩하고, 막걸리 한 사발로 먹고 갔으니까.

● 선잠제 처음 준비하셨을 때, 제사 음식 같은 거는 참고 자료가 있었을까요?

하다 보니까 종묘하고 같이 하면서 제물 같은 거를 많이 교육받았죠.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익은 음식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 지내는 거는 오히려 그냥 날음식이 많아요. 밥이 아니고 쌀보리가 올라오고. 미나리 같은 거, 야채 같은 것도 생으로 묶어서 나오고. 고기도 한두 가지는 익혀 나오는데, 그냥 날로 나와요. 날고기를 올려요.

● 제단에 어떤 음식들이 올라가나요?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는 다 날걸로 올라가요. 또 소고기 내장, 내장은 익혀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음복하고 나서 잡수라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두 가지는 익혀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쌀, 보리, 좁쌀, 또 수수 이런 거 그릇에다 담아둬요. 지금도 그렇지만 종묘에서 제례 하는 양반들이 나와요. 옛날에는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20만 원씩인가, 옛날에도 그렇게 줬을 거예요. 또 어느 대학교인가 어디에서 와서 취타대, 궁중음악 하는 거 옷 입고 와가지고 연주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왕비도 뽑아서 행진했어요. 왕비 뽑고, 공주 둘 뽑고, 상궁 둘 뽑아서 구청에서부터 가마 타고 오는 거예요.



2023 선잠제향 제단

● 왕비 뽑아서 행진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제일 처음에는 안 했었고요. 1, 2회 지나다가 했을 거예요. 여기 설령탕집²⁵⁾ 사모님도 왕비 한 번 했어요. 그 앞에 가면 사진 걸려 있었는데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네. 왕비 뽑는 것도 초창기에는 성북동에 서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 주관하면서 조금 행사가 커지니까 다른 동네에서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구에서 뽑았었어요. 그래서 한 두 분인가는 성북동 분이 아니고 다른 동네 분이 하신 적이 있어. 지금은 옛날처럼 왕비, 공주는 안 뽑죠. (선잠박물관) 관장님이 왕비하고 공주는 궁궐 뒤뜰에서 내명부 대감들이랑 함께 뽕 따고 한 거지, 여기는 나온 건 아니었으니까 뽑을 필요 없다고 말씀해서 안 뽑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불거리를 좀 의식해서 그걸 했어요. 구경거리가 볼 만했죠.

25) 성북구 성북로 105에 있는 성북동 삼거리 전통설령탕을 말한다.

● 왕비를 선발하는 절차가 따로 있었나요?

추천해서 뽑았어요. 추천해 주면은 보고서 거기서 뽑는 거죠. 어느 동네에서 몇 명, 어느 동네에서 몇 명, 이렇게 추천하면 공주는 너무 나이가 많으면 안 되니까 누구네 중학교 다니는 따님이 하고, 왕비는 주위에서 이렇게 뽑고, 그리고 상궁은 나이 좀 있는 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랬었던 거지.

● 그러면 행렬 순서나 옷, 그런 것도 기억나시나요?

우선 옛날에는 왕비 태운 가마가 제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우리 선잠 제관들. 제관들이 이제 2열로 서고. 그 뒤로 취타대, 깃발 이렇게 해서 행군을 했죠. 그때는 그게 구청에서 출발해서 여기 선잠단지 와서 제를 지내요. 그리고 월곡운동장까지 또다시 간 거죠. 행사만 한 게 아니라 제를 지낸 날 한 거야.



2009 선잠제향 당시 미아리고개를 지나고 있는 행렬

● 당시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나쁘다는 소리는 없었죠. 그래도 동네에서 행사라고 하니까. 왕비, 공주, 상궁까지 뽑아서 구청에서부터 선잠단지까지 땡빠라 하면서 가마 타고 오는 거니까는 진짜 컸었죠. 요 앞에는 전부가 참석자들, 구경꾼들 앉아 있었고 그랬지. 제단 옆에 그 담둑²⁶⁾ 옆으로 해서 거기서 앉아서 어디 대학교, 뭐 그런 데서 왔다고도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서울시 페스티벌이 한 번 있었어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는데, 동대문에 가서 우리가 제관복 입고 참가해서 종각까지 행군했어요. 서울운동장(동대문운동장), 지금은 서울운동장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서울시 각 구청에서 다 와서 모였죠. 우리가 그때 1등 먹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행사가 별로 없었고, 성북구가 먼저 그런 걸 했어요. 의관 같은 걸 입고 행진하다 보니까 진짜 화려했죠. 가마, 공주, 상궁 따라서 막 땡바라하고 가니까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1위 했어요.

●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선잠단지에서 행사 계속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책자 받은 거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니 남자들은 분장을 해줬어요. 대감처럼 수염을 뽕족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샌님처럼 이렇게 수염을 빼죽하게 해서 예쁘게도 해주고. 나는 얼굴이 넓죽해서 임꺽정처럼 수염을 붙여 줬어요. 내가 보고서

26) 담의 충청남도 방언

도 “야, 이건 임꺽정이다, 이진.” 그랬지. 한 시간 정도 걸려서 분장했는데 수업 붙여 준 게 되게 근질거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떨지 몰라도, 엄청 가려웠어요. 떼면 안 되니까 손도 못 대고.

생각이 안 났다가도, 그 자리에 가서 서면 몸이 따라줘

● 여러 해 동안 제를 지내셨는데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나요?

맡은 역할이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래야 다음에 가서도 그냥 복습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서면 생각이 안 났다가도, 옷 입고 그 자리에 가서 서면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요. 몸이 따라주는 거야. 그리고 혹시 중간에 그만둔 사람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하지 해마다 거의 바꾸지 않아요. 이번에도 하고 나니까 종묘에서 나온 양반들이 “이제 직접 해도 되겠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막상 또 직접 하려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코치를 해주니까 같이 하는 거지. 옛날에는 좌전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라고 바뀌었더라…. 초헌관 술을 따르고 가지고 오시면 사용했다가 나한테 주면 그걸 받아다가 그 술잔 용머리가 서쪽으로 가도록 놓는데 그걸 세 번을 갖다 놓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걸 했어요. 어떤 친구는 술 퍼서 따라주는 역할, 어떤 친구는 그걸 또 가지고 오는 역할, 어떤 사람은 나처럼 가져다 두는 역할.



2024 선잠제향 성북문화원에서 출발하는 모습

●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처음에 촛불 한번 켜요. 근데 밖에서 하는 행사는 촛불을 켜는데 바람 불어서 꺼지죠? 다시는 안 켵니다. 그냥 꺼진 상태로 행사 끝날 때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켜자마자 꺼져도 다시는 안 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로 들고 가서 초헌관 앞에 갖다 두면은 저쪽에 한 사람이 향을 가져와요. 우리가 요즘에는 꽂아놓는 향을 쓰지만 제 지낼 때는 향나무 직접 깎은 걸 써요. 그래서 불이 있으니까 향로가 엄청 뜨거워요. 그거 다시 올려놓고, 뚜껑 닫죠. 그 다음에는 그 양반들이 잔 올리는 거.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잔 받아서 제단에 올리는 거 내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 혹시 실수를 하셨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었나요?

실수는 다른 게 없고요. 일어날 때 도포 자락을 밟으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왜냐하면 옷이 길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안 입던 거니까 꿰어앉았다가 일어나려다 한쪽 슬쩍 밟으면 그게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고, 누구고 다 거기서 휘청휘청 한 번씩 해요. 도포 자락이 기니까 발로 밟거든. 그리고 이번에 내가 향로를 잡다가 잘못 해서 손가락이 조금 데었어요. 그게 엄청 뜨겁거든요. 향로 옮길 때 수건 두 개를 쓰는데 올해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하나가 없는 거야. 나중에 끝나서 보니까 저 뒤에 날아가 있어. 그래서 하나 가지고 했더니 손이 살짝 익었어.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손바닥이 두껍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었지.

● 선잠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페스티벌하고, 우리가 월곡동 운동장까지 가마 끌고 가면서 행군을 했어요, 그날이 아리랑 축제랑 같이하던 무렵이라 성북구가 거기로 다 모이던 날이야. 그런데 미아리고개 딱 넘어가는데 바퀴는 달아났어도 가마가 무겁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밀고 올라갔는데 길음역 정도 가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그 비를 맞고 월곡 운동장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게 제일 추억에 남죠. 뭐 추억이라는 것보다도 기억에 남는 거죠. 모든 게 추억이지만은 이제 페스티벌 한 거 하고 월곡 운동장 간

거. 가마까지 다 몰고 갔다니깐요. 그때는 깃발도 많았어요.

● 선잠제 하실 때마다 마음이 좀 어떠세요?

한 해 한 해 할수록 새롭죠. 지금 선잠박물관 한형주 관장님이 책 쓰신 걸 보면은 그래요. 이 책이라고 하고 논문이라는 게 누가 어떤 걸 보고 누구한테 뭐를 들었느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관장님이 쓰신 거 다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항상 할 때마다 새로워요. 코로나 끝나고서 이제 제사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나요? 근데 할 때마다 옛날이랑 부르는 명칭도 달라졌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우리가 제사 하기 전에 박물관에 교육받으러 가서 한 두서너 번 만나잖아요. 그럴 때 말씀하시면서 전시, 필름, 영상도 보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새롭죠. 뭐 몰랐던 거 배우는 거니까 항상 새롭죠.



2024 선잠제향 봉행

● 앞으로 선잠제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발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도 어느 정도 궤도는 올랐잖아요. 궤도는 올라와 있으니까 악화 안 되고 유지만 되면은 좋겠어요. 지금도 도움도 잘 주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에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한다고 하지만 주는 한계에서 잘해야겠죠.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 언제까지 보존위원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게. 제가 지금 조금 날씬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똥똥하면은, 절하는 게 몇 번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제 지낼 때 절하는 게 각도가 있어. 각도가 있다 보니까 똥똥하니까 이게 잘 안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살 빼야 한다고는 하지 않지만 1, 2kg 뺐는데 좀 몸이 가벼워진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혼자 하면 괜찮은데 같이 동시에 절하고 같이 일어나야잖아요.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제서야 일어나고 하면 안 되잖아, 보기가 싫어. 그런 것 때문에 무릎만 괜찮으면은 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요즘에 와서는 용돈도 조금 주시더라고. 솔직히 일하는 거에 비해서 따지면, 이것도 그렇잖아. 솔직히 봉사지, 뭐.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얼마를 벌고 하겠지만은 동네 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걸 다 생각하면 못하는 거지.

● 동네 일이다 하고 이제 하시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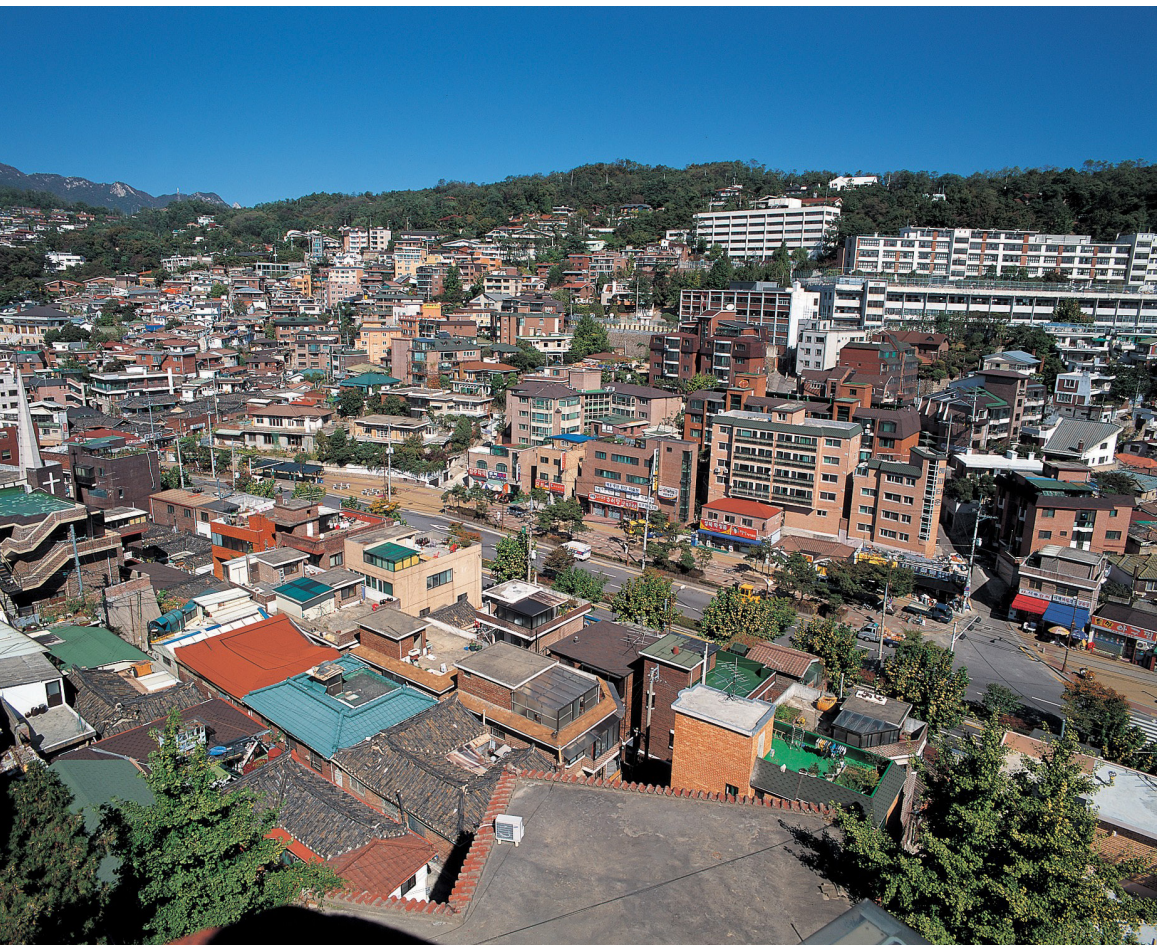
그렇죠. 동네 일이라고 하는 거지. 동네 일이고, 모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거 돈 생각하고 하면 못 하지.



2024 선잠제향 준비 및 행렬

4부

고향 같은
성북동에서



그때는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시골 같은 동네였죠

● 처음에 성북동 어디로 이사오셨어요?

미아리고개에서 거기서 조금 있다가,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기 용문중·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서 조금 있다가 이제 성북동으로 왔었죠. 그래서 성북동이 결혼하고 세 번째로 이사 온 거예요. 네 번째까지 살림집은 이사하고 다섯 번째쯤에 이제 집을 산 거죠.

● 성북동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만 해도 뭐 완전히 그때는 여기가 막힌 길이었어요. 그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시골 같은 동네였죠. 그저 이웃 간 서로가 알고 지내고, 조기 축구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

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그냥 다 그런 친구들이니까. 시골,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죠. 그리고 여기 일방통행 길²⁷⁾ 있죠. 그거 앞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거는 개천 복개 한 거예요. 그 일방통행 길 앞에 건물이 있어서 파출소도 여기에 있었고, 동사무소도 여기 있었고, 또 삼보 목욕탕도 있었고. 성북동에 옛날에 목욕탕 세 개 있었어요. 저기 홍익학교(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있는 쪽에 조금 들어와서, 코너에 지금 마트하고 있는 자리 거기가 성암탕이고, 여기가 삼보인가 그랬고, 요 옆에 낙지(성북동 낙지마당), 그 자리가 성지탕. 여기 목욕탕이 세 개나 있었어요.²⁸⁾ 옛날에는 뭐 사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욕탕이죠.



60-70년대 성암탕의 모습

27) 선잠박물관 맞은편 성북로 97부터 성북로 75까지의 일방통행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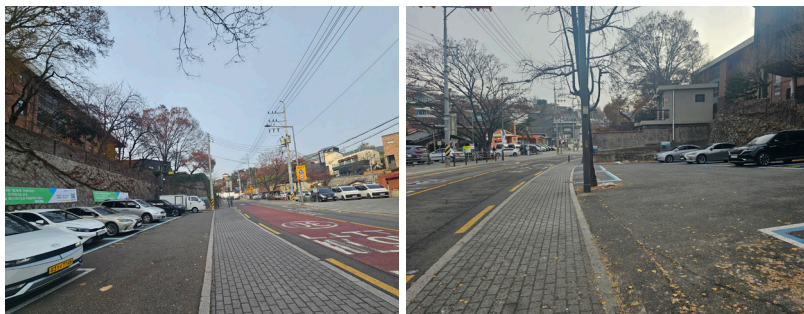
28) 서울시 목욕장업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성북동에는 성암탕(성북구 성북동 60-33), 성지탕(성북구 성북동 97-31), 성복탕(성북구 성북동1가 42-2)가 있었고 현재는 모두 폐업한 상태이다. 삼보탕은 확인되지 않았다.

● 한 40~50년 된 이야기네요.

그렇죠. 46년 됐죠. 79년도에 들어오니깐 저기 구기터널에서 여기까지 터널 뚫어서 신설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신설동까지야 똑바로 도로를 뚫지 못하지만 여기 길을 넓혀야만 전투기가 떴다 내렸다 한다고, 활주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²⁹⁾ 내가 성북동 들어왔을 때 “내년이면 이거 이사 가야 돼.”라고 했는데 당장 갈 데 없으니까 들어갔지. 그때 도시 계획된 게 지금까지 있다가 얼마 전에 해제가 됐어요. 저 위에 평화 부동산³⁰⁾이 있어요. 그게 일부 헐린다고 했어요.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복자수도원이 있어요. 금왕돈가스 건너편 앞에 주차장이 안으로 쑥 들어갔죠. 그게 도로 만들면 그만큼 잘라질 거였어요. 그래서 복자수도원에서 아예 그만큼 잘라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터널 뚫리면 도로가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두 군데나 들어가 있잖아요. 덕수교회 옆에도 그러고 복자수도원 옆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게 자기네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빼놓고 자기네가 건물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집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버티다가 그 도시계획이 없어지니까는 그 집은 그냥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제약이 있으니 재개발 같은 거 하기 어렵죠.

29) 1982년 6월 24일 『매일경제신문』 「성북동 집값 부르는값 팔리는값」 기사에 따르면 대로변 상가 대부분이 도로확장계획지구로 묶여 있어 매매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다.

30) 서울 성북구 성북로 151에 있다.



덕수교회 앞 주차장. 인도 안쪽으로 10여 미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 다섯 번 이사하고 집을 사셨다고 했는데 직접 지으신 건 아니셨죠?

있는 집을 산 거죠. 대지 평수 33평, 잊어버리지도 않네. 방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문간방에 살았어요. 먼저 집 파는 사람이 그냥 안방 살고. 왜? 돈을 조금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 먼저 살던 사람들이 그냥 안방에 살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집들 장만했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사 가고 우리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작은 방은 세놓고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한 거지. 그때 한 번에 돈 딱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 그러면 몇 세대가 같이 산 거예요?

나중에는 세 집이 살았었죠. 우리가 방 두 개 쓰고 문간방 처녀분 한 명 쓰고, 저 앞쪽에 자가용 기사님 한 분이 야기 하나 하고 살고. 그런 식으로 살았었죠.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사 가서도 계속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도 잘 돼서 나갔으니까.

● 당시에 주변 이웃들 살림하는 건 기억하세요?

이 성북동이라는 동네가 빈부 차이가 제일 심한 동네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갑부들은 성북동에 있었었잖아요. 저 윗동네는 제일 부자들 살고, 또 중간쯤에는 그냥 적당하고, 여기 이제 산동네 성북동 성당 건너편 성북 빌리지 뒤편, 그쪽이 서민들이 많이 살았었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북악골프장 넘어가는 그쪽에는 집들도 없었어요. 우리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집합했는데요. 우리 예비군 훈련받을 때

그 집터들 닦아놔서 공터가 많았어요.



1987년 받은 표창장

● 근처에 가게들은 어떤 가게들이 좀 있었을까요?

다 그저 먹고 사는 가게죠. 석유집, 그때는 석유를 주유소에서 파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팔았어요. 이렇게 창고같이 해놓고 드럼통 있잖아요. 거기다 석유를 받아놓고 말³¹⁾로도 팔고 이렇게 되박. 1L라고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도 팔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달해서 갖다주고 그랬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식당, 커피점, 빵집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빵집은 그 나폴레옹과자점하고 홍익중·고등학교 올라가는 데에 부산뉴욕제과점인가 하나 있었어요. 금은방이 두 군데나 있었고 비디오 가게 한 서너 군데 있었고.

● 나폴레옹과자점은 그때도 유명했나요?

유명했죠. 저기 분수마루 있는 데 개천 있잖아요. 거기가 다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4층인가를 개천 위에다 지었어요. 그 코너에 1층, 2층에서 나폴레옹과자점이 있었어요. 그 매장 위에는 공장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북개천을 개방해야 한다고 해서 헐리니까 이쪽으로 건물을 지어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성북동이 아니고 삼선동에 있었던 거지, 길 건너니까. 성북동이 지금 두 군데가 합쳐져서 성북동 됐잖아요. 성북2동이란 저기 삼선중학교 일방통행 길 거기 동소문동이란.

31) 한 말은 한 되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북개천 위에 있었던 나폴레옹과자점

● 성북동에 돈가스 집도 유명하잖아요.

여기 성북초등학교 앞에는 그냥 혜화동 넘어가는 길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금왕돈까스’가 있었는데 ‘금왕돈까스’가 원조죠. 그 가게가 이 골목을 살려놓고 돈 벌어서 지금 그 위로 이사 간 거예요. ‘서울돈까스(서울왕돈까스)’는 집주인이 건물을 짓고 나서 세를 줬어요. 돈가스 집을 세를 줬다가 몇 년 후에 주인이 지금 돈가스 집을 하면서 그 아들이 하는 거예요.

● 금왕돈까스가 인기 있던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 양이 많잖아요. 솔직히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 먹으려면 잘 먹는 사람한테는 양이 적어서 몇 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푸짐하잖아. 그리고 초창기에는 한 5천 원 했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만 원이 넘어가지만. 근데 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아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데한테 안 지려면 맛도 있어야 하니까 맛도 괜찮고. 그러니까 성북동은 ‘금왕돈까스’였죠.

객지 나와서 친구를 만나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 여기에 상인들을 위한 상인회나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성북동은 향우회가 조직이 잘 돼 있었어요. 향우회가 잘 돼 있는데 향우회가 세 군데뿐이 없었어요. 호남회, 충우회, 경상도는 영우회라고 했어요. 세 군데가 몇십 명씩 돼 가지고 잘 운영됐는데, 지금은 영우회하고 호남회는 없어졌어요. 근데 충우회는 아직도 한 열여덟 가구 정도 남았어요. 내가 80년도, 81년도 경에 막내로 가서 17년 동안 총무를 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을 안 받았어요. 그때 내가 어른들한테 뒤에서 욕도 먹었는데 환갑 지난 양반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막말도 한 번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송장 치울 일 있냐.”고. 나는 그때 40대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송장이라고 했다고 형님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분이 많았어요. 지분이 몇천만 원 됐는데 신입이 들어오려면 그걸 내고 들어와야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지분을 백만 원씩 한두 번 나눠 가졌어요. 지분을 줄이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올 때 반절만 해라, 예를 들어서 지분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내라 그런 식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지. 지금 막내가 이제 50대 초반인가 그렇게 젊어요. 그리고 세상 뜬 형님들도 몇 분 계시고. 충우회 처음에 있던 분들은 100살이 넘었죠, 세상 뜬 양반들은. 향우회다 보니까 연령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같아도 형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손들이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네 어르신하고 형님 동생 했는데 자네가 와서 우리하고 또 형님 동생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죠.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했는데, 조카하고 또 형님 동생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형님들 자제들은 한 명도 안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 향우회 분들은 다 성북동에 사시던 분들이실까요?

다 성북동 분들이예요. 지금 여기 명륜동, 혜화동에 한 분 살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성북동에서 사셨어. 그리고 이제 간혹 이사를 가시잖아요. 한 양반이 안산까지 이사가서 안산까지도 우리 회의하러 갔었어요. 그 양반만 매번 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번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 향우회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주로 이제 대소사에 서로 협조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간혹 이제 2년에 한 번씩 나들이 한 번씩 나가고. 향우회니까 결혼, 형님들 나이 잡셨으니까 환갑, 팔순, 또 조카들 결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혼상제 다 그런 거 하죠.

● 향우회, 선잠제보존위원회 말고도 선생님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거나 모임이 있으신가요?

그 외에도 친목회가 많았죠. 저기 장남만 모이는 모임도 있었어요. 맏이들이니까 ‘맏계’라고. 맏계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 깨졌고, 그리고 조기 축구회 모임, 또 새마을 모임 또 반공연맹 모임, 청소년 선도위원회…. 옛날에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선도위원회였고 지금은 구청에서는 지도위원회인가 뭔가 있어요. 지금 성북구에서는 선도위원회는 안 하고 지도위원회만 할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 청소년 육성

회(지도위원회) 거기 나가고 새마을³²⁾ 나가고 하는데, 아 코로나 때 구청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새마을 30년 했다고 고추장, 된장 한 단지씩 하고, 상패 하나 하고 주더라고요. 그때 나랑 같이 받았던 사람이 세 사람뿐인가 그랬어요. 이거 받은 사람 얼마 없지.



2022년 수상한 새마을기념장증

● 새마을이나 청소년 육성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새마을이 옛날에는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랬었거든요. 새마을은 주로 그런 거고. 청소년 육성회는 요새 애들 담배 피우지 않나, 또 개학하고 입학식 할 때 길거리에서 플래카드 들고 선도 하고 그런 거. 그 전에는 일회용 물티슈 갑에 캠페인 용어 같은 거 써진 걸 학생들한테 주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32) 새마을운동중앙회.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국민운동단체이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조기축구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모임

● 성북동이 덕수교회, 길상사, 성북동성당 같이 여러 종교단체가 친하게 지내던데 종교활동을 안 하셨나요?

종교단체들 바자회도 같이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종교를 혈통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야, 서로 공생해 나가는 거지 뭐 혈통어 봐야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천주교보다 저기 교회 쪽에서는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나는 유교다보니까 불교나 같은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프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성당을 나가서 교리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이렇게 찬성 안 했을 텐데 천주교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들어서 “당신만 다녀.” 했어요. 다니는 걸 보니까는 잘 사는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성의껏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십일조라고 갈 때 마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내고 하는데 성당에서는 그건 없대요.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다, 시설을 광범위하게 고친다고 했을 때 찬조하는데 어떤 양반은 1억도 낸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서 안 쓰는 양반은 안 쓰지
만은 개중에는 다 쓰시는 거야. 그 돈 가져가서 뭐 할 거요?

● 선생님에게 이런 지역 활동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객지 나와서 모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타지역 사람과 이제 교류
하는 거잖아요. 업종이 달라도 얘기도 듣고 교류도 하니까 객지 나
와서 객지 친구를 만나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딱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서천군 사람이 새마을에 네 명이 있었어요. 그게
참 힘든 건데, 한 1, 2년인가는 네 명도 있었어요. 어느 모임이고 한
두 명도 힘든데 네 명까지도 한 번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런게 반갑고
좋은 거죠.



2009년 수상한 서울시 자원봉사은장

아무래도 46년을 살다보니까 동네에 애착이 가죠

● 처음 오셨을 때 성북동하고 지금 성북동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뭐 큰 차이는 현대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옛날에는 초가집도 있었고, 저기 저 푸세식 공중화장실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있기는 있어. 근데 수세식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이 조금 많이 들어서기는 했어. 우리 저 골프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집 없었고 다 공터였어요. 여기서 가구박물관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 주위에는 집들이 없었어요. 있으면 하나씩 드문 드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찻잔아요.

● 성북동이 같은 동네인데도 사는 형태의 차이가 컸잖아요. 지금도 위쪽엔 외교단지나 고급 단독주택이 있고, 아래쪽엔 북정마을처럼 서민들이 사는 데가 있고….

부잣집 가면은 대문 하나가 못 사는 집보다도 더 좋죠. 옛날에는 재개발한다고 하면 보수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은 오래된 집이라도 조금 좋게 보수해서 살잖아요. 자식들이 또 수리해서 부모님 드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진짜 벽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그랬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집들도 있었어요.

● 주위에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기 1구역이고, 3구역이고 가면 외부인이 사 놓은 집들이 조금 있어요. 재개발하면 돈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1구역도 산동네는 세가 안 나가니까 돈은 내지 말고 수리해서 살라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비어 있는 집들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 산동네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지. 또 나이 먹은 사람은 다리 아프니까 안 가고.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라. 웬만한 데는 명 째은 놈은 못 들어가고 죽어. 들어가고 싶어도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성북동같이 조건이 안 좋은 데는 더 그래. 내가 그래서 엇그저께도 어떤 양반이 재개발 얘기하길래 “우리 생애 나 한번 보려나 모르겠네.”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은 재개발하려면 땅 주고, 집 주고, 돈까지 줘야 하잖아요. 여기서는 천만 원 내야 할 거를 보문동이나 안암동같이 20층, 30층, 40층 올라갈 수 있는 곳은 200~300만 원만 내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 어려운 문제네요.

성북동 발전이 어려운 이유가 더 있어요. 제일 큰 게 인구가 적어요. 저 부잣집은 가보면 대지 300평에 100평짜리 2, 3층 건물 올라갔는데, 하나 아니면 둘 살아요. 정말 혼자 아니면 가정부하고 둘 사니까 여기 투표 인구도 몇 명 안 돼요. 잘 사는 집은 옛날에는 집이 크면 10명 살고 막 5명 살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두 사람 뿐이 없어요. 이 동네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돼. 그리고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재개발이 힘들어요. 이제 청와대도 이사 가서 풀릴 만도 한데 여기 지금 3지구가 선잠단지 그쪽이에요. 그 뒤에가 부잣집이잖아요. 조금 위에는 7층, 밑에는 15층 제한이 있는데 그게 타산이 나와요? 안 나오죠. 다른 데처럼 뭐 25층, 30층 지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잣집들, 외국 대사관저들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남산 보이던 게 안 보이는 거여.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대사관 관저에 서류가 재개발한다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이제 본국으로 보내요. 캐나다대사관, 호주대사관 이런 개인 대사관저는 서류가 오면 이제 본국으로 보내잖아요. 본국에 결제받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두 달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이 안 돼요.

● 그래도 성북동에 애착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벌써 46년을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아들을 9월에 낳았는데 지금 나하고 나이 같이 먹어가요. 개는 46, 나는 76. 그러다 보니니까 동네에 애착이 가죠. 여기서 평생 벌어먹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먹고 사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힘 드는 일 같은 것도 하니까. 그래서 올해 가게가 계약이 만료인데 한 번 더 연장해 주면 지금 마음으로는 한 80대까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놀면 뭐 해요?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면 좋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 보기도 좋고.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남자가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거래.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야지.

● 그러면 성북동이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것을 느낀 게 있으신가요?

조용해서 좋다. 지금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만 지금도 좋다. 그리고 내가 70년대, 80년대에는 맨날 저녁에 산동네에서 싸우고 파출소로 와서 시끌시끌했어. 근데 지금은 동네에서 파출소에 누구 하나 싸워서 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큰 술집이 없어. 막 쿵쿵쿵쿵하고 뭐 이런 게 없고. 또 여관이 없어. 그게 청소년들한테는 교육적으로는 아주 좋은 동네야. 그리고 성북동이 녹지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 위에 부잣집 사람들이 건물을 100평을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300평이 있어야 해. 풍치 지역이라서 30프로(%)뿐이 못 지어. 그래서 부잣집들이 평수가 큰 거야. 그래서 멀리서 봐도 집들이 숲에 다 싸여 있어. 부잣집들은 높아 봐야 2층, 3층뿐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나무들이 작았는데 몇 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보다 커지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캐나다 가니까 집이 안 보여. 위에서나 봐야 집이 보이지. 우리 성북동도 녹지가 많이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우리 고향 같아요. 그냥 막 시끄럽지 않고 저녁에 술 먹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관문 열어놓고 살았었어요. 밤에도 열어놓고 더우면 열어놓고 자. 근데 이제 집사람이 아프고 나서는 가져갈 건 없어도 도둑 들면 몸이라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현관만 닫는 거지 작은방하고 거실 창은 그냥 열어둬요. 방충망만 있는 거여. 성북동은 좀도둑 같은 거 이런 거는 적더라고요. 누구네 도둑놈 들어 왔다 이런 소리는 못들어 봤으니까 그냥 열어둬요.



북정마을에서 촬영한 성북동 전경(2019년)

앞으로 바라는 건

나이 먹은 우리 두 노인네 더 아프지 않는 거죠

● 자녀분 소개 좀 해주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79년도 여기 성북동 와서 낳았고, 딸은 81년도에 낳았죠. 우리가 원래 종자가 돌림자인데 작명가가 지어줘서 승환이라고 짓고, 딸은 저희 엄마가 승자에다가 승지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승지 벼슬이 있잖아요. 승지가 모든 걸 관장했으니까 우리가 승지로 지었어요.

● 손주도 있으세요?

딸도 딸 하나 낳고 아들도 아들 하나 낳고 인자 그냥 하나씩만 낳고 말았는데, 우리 아들이 서른여덟까지 장가를 못 갔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자기보다 4년 연상이래. 그래서 집사람하고 지네들 사는 거는 사는 거지만 손주 보기는 어렵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와서 아기를 가졌다든 거야. 진짜 좋더라고요. 막 박수치고 웃었다니까.



1990년대 가족 여행 사진

● 자녀분들은 인근에 사세요?

아들은 서산, 딸은 당진에 살아요. 사위는 저기 기름 하는 GS 직원 이고, 아들은 현대자동차에 다녀요. 작년까지만 해도 협력업체였는데 계열사로 바뀌어서 정식 직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 대학교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사위도 대기업 다니니까 보너스가 잘 나와요. 명절 때마다 상품권 나온 걸로 우리 뭐 하나씩 해줘요. 그리고 콘도도 어디가서 쓰라고 해서 작년에는 부여에 있는 리조트에 갔어요. 가서 백마강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수상배, 그거 타고 낙화암 밑으로 싹 돌고 왔죠. 참 대기업이 좋기는 좋아.

● 여기서 사시면서 힘들 때는 없었나요?

뭐 힘든 거 있었죠. 81년도인가에, 나는 20만 원짜리 문간방 월세 살 때 전라남도 함평 친구가 있었어요. 꼬마 때 같이 일을 배웠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게를 차려서 을지로 쪽에서 장사를 하니까 외상을 준 거죠.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근데 안 갚고 그냥 저녁에 날랐어요. 그 당시에 400만 원이면 이 위 산동네 가면 집 두 채 사고도 남았어요.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그거 때문에 팍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 한 번도 안 찾아다녔어요. 찾아댕겨서 돈을 줄 사람 같으면 도망갔겠어요? 그럼 내가 일해서 먹고살자, 빚은 아니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견뎌오다가 집도 사고 성북동에서 살았죠. 그리고 IMF 때 집사람이 계오야³³⁾를 했는데 어떤 여자가 계 타면은 이자

33) 계오야(契おや): 계주

준다고 가져가서 중간에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래오래 그
거 은행에 갇았죠. 남들이 나보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시골에
땅도 사 놓고 뭐도 했겠네.”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 사모님이 투병 중이시라 자칫 분위기나 그런 게 가라앉을 수
도 있는데 선생님이 낙천적이고 유쾌하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있어요. 그냥 낙천적인 거는 있어요. 진짜로 가진 건 없는데
그거 하나는 내가 가진 거는 있어.



여행지에서 찍은 독사진

●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이제 아프지 않고 그냥 오래 누워있지 않는 거죠. 100세 시대라도 병원에서 10년, 20년 있으면 뭐 해요. 내가 기여서라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이거지. 우리 어머니는 딱 쓰러져서 4일 누웠다 가셨어요. 그러게 우리 8남매가 누구도 말 한마디를 못 했어. 내가 어머니를 못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 길이라도 모셔야 한다고 4일 동안 중환자실 앞에서 안 떠났었어요. 엄마가 이틀째 자는 날 눈 한 번 뜨더니 짝 한번 훑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끝인데 한 번은 보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딱 새벽녘에 어머니 이름 불러서 가니까 큰 숨 세 번 쉬시더라고. “하아아 푸우!” 이런 식으로 세 번 딱 쉬시더니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셨어. 교회에서 행사 이런 모든 게 같이 움직이니가 안 다니면 따돌림당해. 근데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싸웠디야. 자기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처럼 세상 뜨고 싶다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잘했었던 분이 차지하셨대.

●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 같은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돌아보면 허무하죠. 왜냐하면 참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누구도 마찬가지로지만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렸지, 옆을 쳐다보면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물론 눈으로야 볼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 옆을 보면 안 되고 앞만 봐야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라는 게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구멍가게 하나 일으킨 사람도 있

지만 참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바라는 건 가족들 건강, 나이 먹은
우리 두 노인네(본인과 아내) 더 아프지 않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갈
때 손 잡고 가면 제일 좋은 거겠죠.

에필로그Epilogue

이만규 님과의 작업은 유쾌했습니다. 매번 기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에너지를 선사하는 그분의 타고난 순수성과 낙천성 때문이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선잠단을 관리하고 선잠의례에 성심성의껏 참여하여 꾸준히 행사를 이끌어온 그의 술한 날들은 삶의 터전이 되어준 성북동에 대한 감사와 애정의 결과인 듯싶습니다. 새삼 성북동 구석구석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이었지만 역동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 일상의 날들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문화원 담당자분들과 무더운 여름 함께 작업한 정봉운 선생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임진희

2024년 ‘내가 기억하는 선잠과 친잠이야기’ 면담에서 처음 뵈는 이만규님의 구술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선잠제보존위원회의 발달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소리 없이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와 가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 문화재가 후대에까지 계승될 수 있으리란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계승된 선잠 의식과 문화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지



역 공간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 구술을 마칩니다. 소중한 면담해주신 구술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봉운

이만규님과의 인터뷰는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지역공동체의 일을 내 일처럼 헌신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도 즐겁게



임해주신 이만규님과 풍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인터뷰에 깊이를 더해주시는 주민기록단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진아

이미지 출처

- 16쪽: 유니온씨 촬영
- 20쪽: 유니온씨 촬영
- 23쪽: 서천군청
- 26쪽: 국가기록원
- 28쪽: 이뮤지엄
- 29쪽: 국가유산청
- 30쪽: 국가유산청
- 35쪽: 카카오맵
- 40쪽: 김나연 촬영
- 42쪽: 서울기록원
- 44쪽: 김나연 촬영
- 47쪽: 국가기록원
- 50쪽: 김나연 촬영
- 51쪽: 김나연 촬영
- 55쪽: 김나연 촬영
- 58쪽: 김나연 촬영
- 62쪽: 김나연 촬영
- 65쪽: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66쪽: 이만규 그림
- 67쪽: 국토지리정보원(상), 성북마을아카이브(하)
- 70쪽: 국가유산청

72쪽: 서울시 미래유산
73쪽: 성북마을아카이브
75쪽: 김나연 촬영
79쪽: 이만규 제공(좌), 김나연 촬영(우)
81쪽: 성북문화원
82쪽: 선잠박물관
85쪽: 김나연 촬영
87쪽: 김나연 촬영
89쪽: 김나연 촬영
92쪽: 성북마을아카이브
94쪽: 성북마을아카이브
96쪽: 성북문화원
97쪽: 이만규 제공
99쪽: 성북마을아카이브
101쪽: 이만규 제공
103쪽: 이만규 제공, 김나연 촬영
104쪽: 이만규 제공
105쪽: 이만규 제공
110쪽: 성북마을아카이브
111쪽: 이만규 제공
113쪽: 이만규 제공
116쪽: 성북문화원
117쪽: 성북문화원(상), 유니온씨 촬영(하)

성북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특히 선잠단지와 선잠제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복원하고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성북 사람들의 구슬쟁이사』 열 번째 주인공인 이만규님은 30년 넘게 선잠단지와 연을 이어오며 그 가치를 지키고 계십니다. 스물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던 소년은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갈고닦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결혼 후 정주한 성북동은 어느새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묵묵히 선잠단지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신 이만규님의 이야기를 통해 구슬자의 넉넉한 인품과 유쾌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9 791198 599056
ISBN 979-11-985990-5-6

비매품